

myFord

2014 SPRING



이번이 곧 순리다!

성능, 품질, 가격, 효율성 등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번으로 가득한 Taurus의 매력.

ESCAPE와 떠난 전남 담양 여행

햇빛에 반짝이는 햇살과 옛 사람들의 시와 노래가 전해지는 오래된 정원 속을 거닐다 보니 담양의 봄은 꿈처럼 느끼게 흘러갔다. Escape와 봄을 담은 옛 고을로 떠났다.

2014 부산국제모터쇼 프리뷰

오는 5월 30일에 개막해 열흘 동안 진행되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 속 포드 자동차의 모습을 미리 만나 본다.



Go Further



THE ORIGINAL - THE LUGGAGE WITH THE GROOVES

In 1950, RIMOWA issued the first suitcase with the unmistakable grooves. Since then, it has evolved into a cult object in its own right. To this day, the original RIMOWA luggage has lost none of its fascination. It remains the luggage of choice for all those who seek the extraordinary - including models Alessandra Ambrosio and Johannes Huebl.

RIMOWA Stores Korea : 청담스토어 02.546.3920, 명동스토어 02.6361.8320, 신사스토어 02.540.3920, 갤러리아 WEST 02.6905.392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44, 본점 02.3438.6142
롯데백화점 본점 02.2118.6077, 부산분점 051.810.3166, 센텀시티 051.730.3253, AK 플라자 분당점 031.8023.2166,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3920, 롯데면세점 본점 02.759.6649 www.rimowa.com

RIMOWA®

Germany since 1898



포드코리아는 끝없이 도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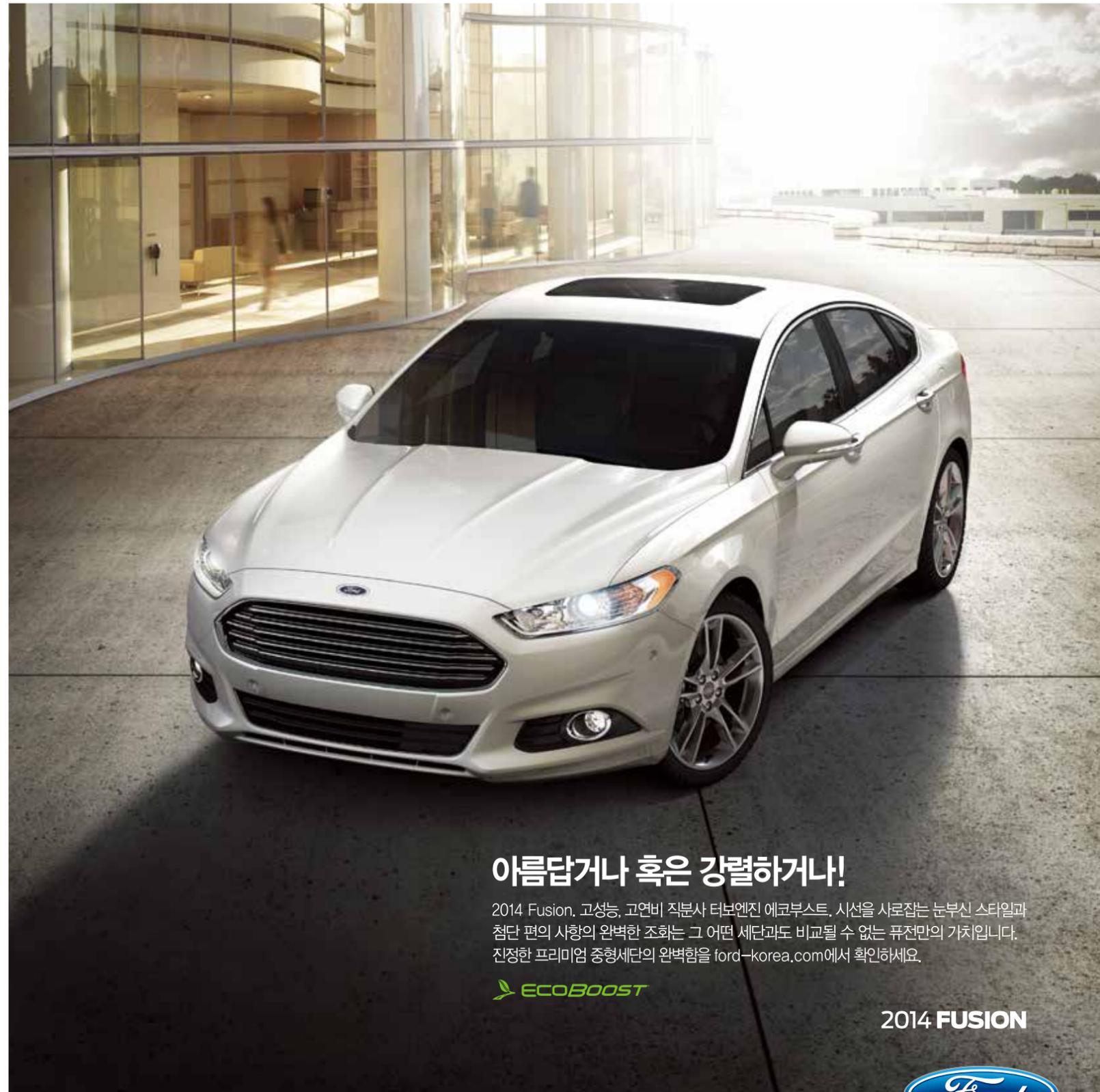
주변 분들과 2014년 새해 덕담을 나누는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고마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포드 고객 여러분은 2014년 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올해 초부터 포드는 여러 가지 축하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적 기업 윤리연구소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Ethisphere Institute)가 주관하는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자동차 업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데 이어, 포드 포커스에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베스트셀링 카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1964년 출시 이후 50년간 총 900만 대 이상 판매하며 포니카의 시초이자 아메리칸 머슬카의 아이콘으로 그 영향력을 지속해온 포드 머스탱이 지난 4월 17일 탄생 5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지천명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푸른 꿈과 자유 그리고 열정과 젊음을 상징하는 머스탱은 올해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포드코리아 역시 양적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 실 새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진출 이래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인 연간 판매고 7214대를 기록하며 전체 시장 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40.7%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드코리아는 올 들어 인천, 대구, 노원, 제주 전시장을 새로 여는 등 지속적인 세일즈/서비스 네트워크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개최한 포드·링크 챌린지 컨퍼런스 같은 세일즈 컨설턴트 기술/서비스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포드코리아가 야심차게 선보일 신규 모델과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에도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5월 말 개막하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에서는 수입차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포드의 간판 SUV인 익스플로러와 인기 절정의 스마트 대형 세단 토러스를 비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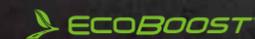
고객 여러분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포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머스탱 팬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뛰게 할 올-뉴 머스탱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되며, 이 밖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여러분과 소통하는 동시에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 올해 13년을 맞이한 포드의 환경 후원 프로그램인 '포드 그랜츠'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 사회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봄은 '희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침몰 사고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과 고객 여러분에게 이 봄이 큰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아름답거나 혹은 강렬하거나!

2014 Fusion, 고성능, 고연비 직분사 터보엔진 에코부스트, 시선을 사로잡는 눈부신 스타일과 첨단 편의 사양의 완벽한 조화는 그 어떤 세단과도 비교될 수 없는 퓨전만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프리미엄 중형세단의 완벽함을 ford-korea.com에서 확인하세요.



2014 FUSION



Go Further

ford-korea.com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수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퓨전 1.5L : 배기량(cc) 1,498 공차중량(kg) 1,585 지동6단 복합연비(km/L) 11.8 도심연비(km/L) 10.1 고속도로연비(km/L) 14.7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49 ▶ 퓨전 2.0L :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645kg 지동6단 복합연비 10.3 km/L 도심연비: 8.9 km/L, 고속도로연비: 12.7 km/L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2 g/k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517-4357 *전국 27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myFord

2014 SPRING

Play with Ford

04 CEO Greeting

포드코리아는 끝없이 도약합니다.

08 Ford Story_헨리 포드 2세,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다

헨리 포드 2세가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보여준 경영 철학과 혁신으로 포드사는 제2의 도약을 맞았다.

10 Ford with Media_Ford, It's Amusing!

분야를 넘나드는 컬래버레이션을 비롯해 아이디어가 기발한 이벤트로 늘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포드자동차. 국내외에서 펼쳐진 포드의 독특 튀는 마케팅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12 Smart&Technology_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지형 관리 시스템

운전자가 충돌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여러 지형에서 접지력을 높여 안정적인 운전을 도와주는 지형 관리 시스템은 완벽한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13 Car Care Tip_봄철 차량 관리법과 안전 운전에 관한 궁금증

봄철 야외로 드라이브를 나가기 전 필요한 안전 운전 요령과 겨울을 보낸 자동차 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4 Focus on_Be in the Spotlight!

2014 5월 30일에 개막해 열흘 동안 진행되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 속 포드자동차의 모습을 미리 만나본다.

16 New Ford Life_Figure Play

하이브리드가 대중화된 요즘, 기술력에 대한 우위는 얼마나 개선을 잘해 완성도를 높이느냐로 판가름이 난다. 퓨전 하이브리드는 이전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은 수치로 하이브리드 선두주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20 Ford to Ford_Perfect Completion

익스플로러는 SUV 붐을 타고 온 좋게 돈 반짝 스타가 아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변화한 끝에 완성된, 포드 SUV 전통의 산물이다.

24 Driving 1_이번이 곧 순리다!

성능, 품질, 가격, 효율성 등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번으로 가득한 토러스의 매력.

28 Take 5_Hidden Power Taurus

위압적인 차체를 거뜬히 이겨내는 힘과 안정성. 놀라운 기술력이 곳곳에 담긴 토러스는 당신의 카리스마에 화룡점정을 찍는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30 Driving 2_호주 시드니 머스탱 글로벌 론칭 쇼를 가다

작년 12월 4일부터 3일간 포드 6세대 머스탱을 최초로 공개하는 호주 시드니 글로벌 론칭 현장에 다녀왔다.

32 Gourmet Road_이스케이프와 함께 떠난 전남 담양

고려 때부터 지금의 이름이었다는 담양에서의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갔다. 이 꿈같은 여행을 이스케이프와 함께했다.

38 Theme Travel with Ford_Ola! Portugal Lisbon

포드코리아가 이벤트를 통해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8명의 고객을 선정했다. 5월 24일 결승전이 열리는 에스타디우 두 스포르트 리스보아 에 벤페카 경기장을 비롯해 포르투갈 리스본의 아름다운 명소로 떠나는 여행.

42 Driving Course_滿! 滿!! 滿!!!

이번 주말 휴전과 함께 서울대공원 주변의 보물을 찾아 모험 같은 드라이브를 떠났다.

People

46 Ford Interview_헤인자동차 유종한 대표

지난해 포드코리아의 딜러사로 합류한 헤인자동차는 그동안 수입차 딜러사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걸으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유종한 대표를 만났다.

48 Celebrity Interview_배우 지일주

수많은 캐릭터를 소화하며 자신의 경계를 끊임없이 건너고 있는 배우 지일주를 만났다.



Trendy

52 Ford Guy_The Travel Alone and Together

진정한 남자라면 한 번쯤은 익스플로러와 함께 일상을 벗어나 홀로 여행을 떠날 것. 익스플로러와 함께 숲으로 떠난 한 남자의 캠핑 기행.

58 Beauty_Pore Minimizer

쫘뽀하게 모공을 조이는 케어 팁과 스킨케어 제품.

60 Gift Item_Spring Sparkling Wine

봄날, 파리지앵처럼 노천카페에 앉아 탄산 가득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 느낌이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풍미를 더해줄 스파클링 와인으로서의 초대.

62 Driving Music_All Night Long

밤새도록 짜릿한 드라이브에 몸을 맡기고 싶어지는 일렉트로 댄스 하우스 뮤직 음반을 꼽았다.

63 Ford Choice_One Fine Spring Day

포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감각적인 봄을 맞이하는 방법.

Life Style

64 Chef's Table_It Tasty, Contemporary Cuisine

접시를 정성스럽게 수놓은 컨템퍼러리 퀴진 레스토랑 류니끄의 류태환 셰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에서 느껴지는 오감. 동서양의 감성을 넘나드는 컨템퍼러리 요리의 진수를 맛보라.

68 Ford Place_특명, 원주의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라

시골벽적인 서울과 다른 갖가지 매력을 가진 숨은 명소가 가득한 도시 원주, 포드 원주 전시장이 있는 원주의 시크릿 플레이스를 찾아 떠난다.

70 Outdoor Leports_Fly Fishing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배우 브래드 피트처럼, 한 번쯤 배워보고 싶은 플라잉 피싱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72 Golf Tour_South Cape Owners Club

남해의 아름다운 비경이 펼쳐진 곳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최고의 건축가들과 아티스트들이 만든 그림같이 아름다운 건축물, 자연과 어우러진 18홀의 골프 코스가 펼쳐진다.

76 Class_승부는 아이디어가 뒤집는다

비즈니스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획기적인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줄 아이디어 발상법을 소개한다.

77 Dealer News

포드의 각 딜러사별 주요 뉴스를 모았다.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80 Ford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발행일 2014년 5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헨리 포드 2세가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하지만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보여준 경영 철학과 혁신으로 포드사는 제2의 도약을 맞았다.

Editor 이희진 참고 서적 《헨리 포드의 국제유대인》 헨리 포드 저, 김현영 역, 리버크레스트 출판

헨리 포드 2세,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다

1 포드 GT40 디자인 스케치 2 머스탱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헨리 포드 2세 3 1964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머스탱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 1세의 손자 헨리 포드 2세는 1917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의 사업이 절대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는 풍족한 생활을 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이후 아버지 에셀 포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대표 자리에 오르고, 헨리 포드 2세도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명문 예일 대학에 진학했지만 끝까지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이후 해군에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암 투병을 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복무 1년 만에 병역 면제 대상으로 군 생활을 마친다. 포드자동차 회사의 부사장이 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고자 했지만 할아버지 포드 1세가 다시 경영 일선에 참여하면서 2년이 지난 1945년 9월 21일 포드자동차 회사의 사장에 취임한다. 경영권을 물려받은 헨리 포드 2세는 생산과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했다. 취임 당시 회사는 전쟁으로 유럽 공장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내수 판매 역시 좋지 못한 성적을 내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회사의 위기에 맞물려 새로 취임한 젊은 사장은 어린 시절의 행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샀다. 하지만 업무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고치고 배우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는 이런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또 그는 경영난이 심각한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자 전국의 포드 근로자들과 만났으며,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노사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헨리 포드 2세는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1945년 V8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의 양산을 재개하고, 1949년 전후 첫 모델인 모델 49를 내놓은 데 이어 1955년에 발표한 스포츠카 선더버드는 크게 히트를 쳤다. **1964년 등장한 머스탱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포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았다. 스포츠카 바람을 몰고온 머스탱은 2년 만에 100만 대 이상 팔리는 돌풍을 일으켰다.** 또 포드 최초의 전문구동 자동차 피에스타도 그의 주도하에 개발되었다.

1963년 초 헨리 포드 2세와 포드디비전 CEO 리아리아코카는 강력한 포드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해 모터스포츠에 진출한다. 당시 레이싱카 엔지니어링이 가장 발전한 영국에 포드 어드밴스드 비클(Ford Advanced Vehicle)을 설립하고 연구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1964년 초 GT40을 개발했다. 높이가 40인치라 GT40이란 이름이 붙은 이 차는 차체 중앙에 엔진을 장착한 미드십 카다. 1966년 GT40이 르망에서 1, 2, 3등을 차지함으로써 경쟁자인 페라리를 이긴다는 꿈이 실현됐다. 그리고 GT40은 지금도 포드의 역대 자동차 중 가장 매력적인 차로 손꼽힌다. GT90, 인디고 등의 콘셉트카들은 이런 스포츠 전통을 잇고 있다. 헨리 포드 2세는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잊지 않았으며, 가족 경영으로 이어오던 회사를 자신이 물려나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등 이기심을 버린 과감한 기업 혁신을 마지막까지 몸소 실천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헨리 포드 2세의 말에서 그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2014 LINCOLN MKZ

플루이드 모션의 감성이 빚어낸 링컨 MKZ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차 안에서든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만타가오리의 우아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는 어느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심플하며 완벽합니다. 이처럼 섬세한 디테일과 첨단 테크놀로지는 아름다움을 넘어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전혀 새롭게, 당신처럼 완벽해진 2014 링컨 MKZ



lincoln-korea.com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노원 02)6226-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평촌 031)425-2212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부산 051)741-5114
부산수영 051)758-0075	제주 064)759-9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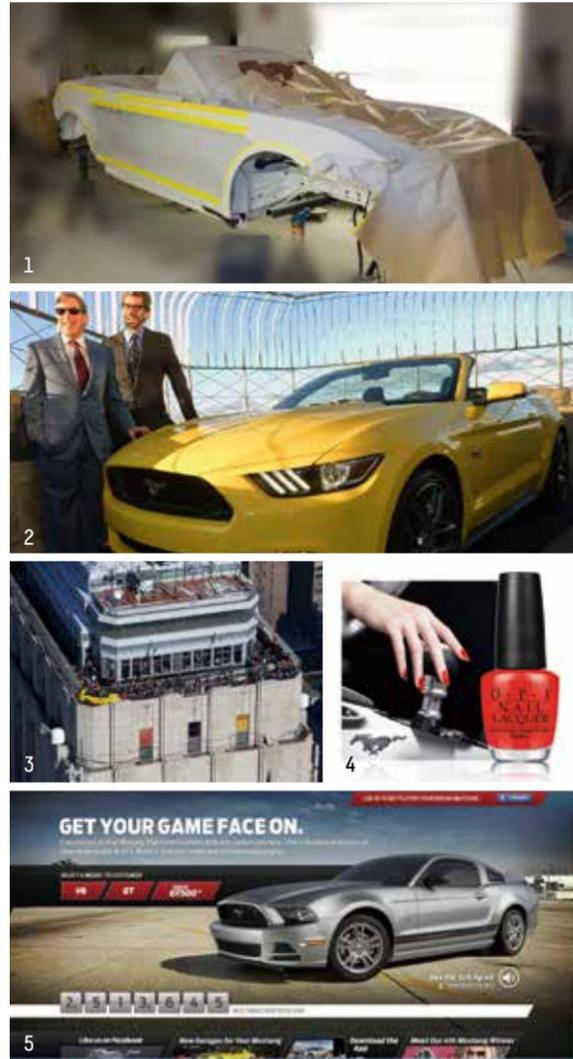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링컨 MKZ ▶ 배기량(cc) 1,999 공차중량(kg) 1,760 저동력 복합연비(km/L) 10.2 도심연비(km/L) 8.5 고속도로연비(km/L) 13.3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74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우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617-4357 ※ 전국 27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분야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을 비롯해 아이디어가 기발한 이벤트로 늘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포드자동차. 이들의 행보는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내외에서 펼쳐진 포드의 특색 튀는 마케팅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Editor 강미라

Ford, It's Amusing!

1, 2, 3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전망대에 머스탱이 전시됐다. 4 O.P.I 머스탱 50주년 한정판 네일 컬러 5 튜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머스탱 커스터마이저



자 신만의 머스탱을 갖는 상상, 자동차 마니아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포드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www.ford.com)에서라면 잠시나마 그 꿈이 가능해진다. '머스탱 커스터마이저(Mustang Customizer)' 탭에 접속하면 머스탱 V6, 머스탱 GT, 헬비 머스탱 GT500까지 총 세 종류의 차량 중 하나를 선택해 외관을 튜닝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머스탱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완성된 머스탱은 월페이퍼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도 가능하다. 튜닝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이를 통해 최고의 머스탱을 뽑는 콘테스트를 할 예정이라 마치 하나의 디지털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상을 준다.

또 올해는 머스탱 탄생 50주년이라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가 많다. 지난 4월 17일에는 엠파이어스테이트 86층 전망대에 머스탱을 전시했다. 차량을 전망대에 올리기 위해 차체를 여섯 조각을 내고, 100여 가지 파츠를 분리해 엘리베이터로 20회 넘게 왕복해 운반했다는 사실! 건물이 너무 높고 주변이 복잡해 크레인이나 헬기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짧은 폐장 시간 안에 이를 모두 조립해야 하는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사실 이 이벤트는 49년 전인 1965년에도 머스탱 마케팅 일환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획기적인 발상은 당시 전시 첫날에만 1만4000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았고, 실제 머스탱 세일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뷰티 브랜드와 머스탱의 만남도 기다리고 있다. 네일 전문 브랜드 'O.P.I'와 콜라보레이션한 50주년 한정판 네일 컬러 '레이스 레드'가 오는 7월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예술 분야와의 수준 높은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된 바 있다. DJ 소울스케이프 등 대중문화 예술가들과 2013년형 퓨전이 만난 '사운드 오브 퓨전(Sound of Fusion)' 프로젝트다. 퓨전의 문 닫히는 소리, 엔진음, 전자 경고음 등을 음악과 접목한 이 마케팅은 국내 수입차 시장 중 최초로 기록되었다. 또한 포드의 마케팅은 언제나 소비자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전시장 시승 이벤트가 그렇다. 지난해에는 시승 고객을 대상으로 LA다저스 경기 관람권 17매를 제공했으며, 올 5월에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UEFA) 관람권을 8명에게 선사했다. 전시장의 문턱을 낮춘 이러한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퓨전 론칭 시에는 트럭에 퓨전을 싣고 전국을 누비는 퓨전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 SNS에 리뷰가 꾸준히 올라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 역시 포드자동차가 가장 활발하다. 유럽에서 주로 판매한 피에스타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기 전 '피에스타 무브먼트'라는 마이크로 블럭 사이트를 론칭한 것이 좋은 예. 자동차 분야에서 SNS 활동이 활발한 100명을 모집해 매달 한 개씩 총 6개월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이들은 자신의 SNS와 피에스타 무브먼트 사이트에 미션 수행 활동과 리뷰 등을 공유했고, 이들을 통해 피에스타에 대한 언급과 리뷰가 SNS에 급격하게 확산됐다. 국내 활동 중에서는 페이스북 팬을 초청해 진행하는 소셜 캠핑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시작된 소셜 캠핑은 당시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였다. 차량의 특별한 기능을 체험하게 하고, 미니 콘서트와 비버큐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풍성하게 꾸려 매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에도 특별한 소셜 캠핑이 열릴 예정이며, 벌써부터 페이스북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러스가 드리는 특별한 가치
 테크놀로지의 가치 - 직분사 터보 2.0 에코부스트 엔진과 3.5Ti-VCT 엔진까지 다양한 선택 경제성의 가치 - 동급 최강의 뛰어난 연비

FORD'S BEST 5년 10만km 보증서비스 [3년/6만km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서비스(ESP)]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장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토러스 2.0L : 배기량 1,999 공차중량(kg) 1,890 저용6단 복합연비(km/L) 10.4 도심연비(km/L) 8.8 고속도로연비(km/L) 13.3 동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71 ▶ 토러스 3.5L : 배기량 3,496 공차중량(kg) 1,900 저용6단 복합연비(km/L) 9.2 도심연비(km/L) 6.9 고속도로연비(km/L) 11.7 동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93 ▶ 토러스 SHO : 배기량 3,496 공차중량(kg) 2,020 저용6단 복합연비(km/L) 8.2 도심연비(km/L) 6.9 고속도로연비(km/L) 10.5 동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g/km) 220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뒷모든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917-4357 * 한국 24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지형 관리 시스템

드라이빙의 가치는 가속력, 정숙성, 편안함, 안전성 등의 단어로 꼽을 수 있다. 포드자동차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완벽한 드라이빙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여러 지형에서 접지력을 높여 안정적인 운전을 도와주는 지형 관리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Editor 강미라

1, 2 지형 관리 시스템이 장착된 익스플로러 3 네 가지 노면 선택할 수 있는 지형 관리 시스템 다이얼 4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앞차와의 간격을 알려준다.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가 속도를 설정해 정속 주행을 도와주는 크루즈 컨트롤. 1945년 시각장애인 발명가 랄프 티토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레이더 기반으로 차간거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발전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상용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포드 토러스 등에도 탑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Adaptive Cruise Control Systems)'이다. 많은 자동차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Top Safety Picks'로 선정된 포드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한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다. 현재 익스플로러, 퓨전, 토러스에서 만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미리 설정된 세 가지 간격 유지 탭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앞차와의 거리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기능이다. 앞차와 간격이 좁아지면 차량의 속도가 줄고, 반대로 거리가 멀어지면 본래 운전자 설정 속도로 복귀한다. 도로가 혼잡하거나 원활해지는 등 교통 상황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므로 장거리 드라이빙에 유용하다. 특히 포드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제동 보조 기능이 포함된 추돌 경고 시스템(CWBS; Collision Warning with Brake Support)이 함께 작동한다. 앞차와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거리 표시 막대를 보여준다. 이후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브레이크에 압력을 가한다. 사고나 추돌 위험이 감지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않아도 추돌 경고 장치가 직접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다이얼만 돌리면 어디든 걱정없이 달릴 수 있는 지형 관리 시스템(TMS)

익스플로러에 탑재된 지형 관리 시스템(TMS; Terrain Management System) 역시 안정성을 더한 혁신적 기술이다.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을 사용해 네 가지 노면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설정한 모드에 따라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을 노면 조건에 맞게 제어해준다. 각각의 모드를 살펴보면 'Normal Mode'는 정상적인 도로 조건에서 사용한다. 'Mud/Rut Mode'는 뒷바퀴에 전달되는 엔진 토크를 높이고 변속기 상단 변속을 늦춰주기 때문에 미끄럽거나 진흙이 많은 길, 울퉁불퉁한 지형 등에 적합하다. 'Sand Mode'는 모래나 자갈이 깊이 쌓였을 때 설정한다. 상단 변속 타이밍을 변경해 뒷바퀴 토크를 미리 높이고 바퀴가 헛돌 때 반응을 조절해준다. 모래가 젖어 있고 깊어서 바퀴가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Snow/Gravel/Grass Mode'는 단단한 노면에 눈, 얼음, 물, 풀이 덮였거나 자갈이나 모래가 얇게 쌓였을 때 선택한다. 더 빠른 상단 변속으로 프로그래밍되면서 주행 안정 장치의 슬립을 높이고 엔진 토크를 조정해 자세 균형 제어력을 향상시킨다. 네 가지 지형 시스템과 더불어 HDC(Hill Descent Control) 모드도 구성되어 있는데,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해준다. 운전자가 가장 필요한 순간 뛰어난 구동력과 제어 능력을 제공하는 포드의 스마트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진정한 가치를 혁신해나갈 이들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보자.

Point 2 봄에 찾아오는 춘곤증을 대비한 안전 운전 요령
따뜻한 봄날 운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운전 중 춘곤증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는데,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 중 1위도 졸음운전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운전 중 자주 창을 열어 환기하는 것으로, 바깥공기가 제대로 유입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잠이 오거나 판단력이 흐려진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입 운동을 할 수 있는 껌, 사탕, 견과류를 차 안에 구비해둔다. 하지만 운전 중 졸음은 억제하기보다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고 10분 정도 토막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Point 3 차량 대청소

시간을 할애해 봄맞이 대청소를 해보자. 겨우내 자동차 외부와 하체에 묻은 빙결 방지제(염화칼슘)를 제거해 자동차의 부식을 최소화하고, 차체에 묻은 다양한 오염 물질을 없애야 한다. 오염이 심할 때는 자동차 전용 세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가정용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고무 제품의 변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또 부드러운 스펀지나 헝겊으로 닦고 먼지 입자로 인한 긁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펀지를 자주 행구기며 닦는 것이 좋다.

Point 4 내장재 청소법과 시스템 점검

내장재 카펫, 안전띠 등은 규격에 맞는 부드러운 비누액으로 닦아낸다. 섬유 재질에 묻은 얼룩은 재질에 맞게 제거하지 않으면 보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재질의 성상을 꼼꼼히 확인할 것. 내장품에 기름이 묻은 곳은 면포에 알코올을 묻혀 가볍게 두드려 닦고, 시트 등 가죽 제품은 중성세제 또는 알코올이 소량 함유된 세척제를 이용한다. 특히 가죽 제품은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알코올이 다량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 변색이나 표면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이와 함께 겨울철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을 미리 점검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에어컨 필터는 자동차의 외부에서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에 포함된 미세 먼지나 꽃가루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 작동 상태, 배터 충전 상태, 필터의 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미리 점검해둔다.

Point 5 자동차 하체 관리

겨울을 난 자동차 하체에는 도로의 타르 찌꺼기, 빙결 방지제 성분, 다양한 이물질의 퇴적물 등 하체 부식성 물질이 부착될 수 있다. 이런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식 방지 처리를 하더라도 연료계 프레임, 플로어 패널, 배기 장치 등에 녹이 발생해 빠르게 변질 수 있다. 부식성 물질을 발견하면 자동차의 하체와 휠의 열린 부분을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로 깨끗이 닦아낸다. 특히 진흙이나 오물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닦고, 차체 하부와 도어 하단 연결부, 하체의 패널, 배출 구멍이 있는 프레임 멤버 등은 오물로 막히면 물이 고여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히 관리한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따뜻한 햇살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의 여왕, 봄. 야외로 드라이브를 나가기 전 필요한 안전 운전 요령과 겨울을 보낸 자동차 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Editor 이희진 참고 자료 도로안전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봄철 차량 관리법과 안전 운전 관련 궁금증



Point 1 봄철 황사로부터 자동차 지키기

봄이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 먼지와 황사가 골칫거리다. 황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 차체와 부품에도 손상을 주는데, 이는 차가 많은 첨단 전자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미세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박스형 승차 공간과 각각의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차체에 먼지가 쌓였을 때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산화에 의한 부식 현상이 일어나므로 바로 청소해야 한다. 먼저 엔진의 손상을 막기 위해 보닛을 열고 먼지를 털어낸다. 또 필터 관리도 중요한데 엔진실 유입 에어필터를 교체한다. 공기가 유입될 때 흡기부의 에어필터가 찢어지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면 황사나 미세 먼지가 필터를 통해 엔진실로 유입돼 엔진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에어필터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정기 점검을 해서 주행 1년 혹은 주행거리 2만km일 때 필터를 교환한다. 황사가 심한 경우 장기간 주차 시 가급적 실내 주차장을 이용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 자동차에 미세 먼지가 쌓이거나 황사 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운행한 뒤에는 실내외를 깨끗이 청소한다.



info
2014 부산국제모터쇼
 일시 2014. 5. 30(금) ~ 6. 8(일)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포드관은 2관(신문) 위치
 문의 1566-1369, www.bimos.co.kr



BIMOS 2014

Be in the Spotlight!

포드코리아와 함께하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 프리뷰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에서 포드코리아는 'Power of Choice'라는 콘셉트 아래 가장 큰 규모의 부스와 차별화된 이벤트, 풀 라인업(Full Line-up) 엔진을 갖춘 13대의 차종을 선보인다. 2014년 5월 30일에 개막해 열흘간 진행되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를 미리 만나본다.

Editor 강미라

1, 2, 3 2013 부산국제모터쇼 포드관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4, 5 작년 부산국제모터쇼를 찾은 관람객들은 포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Power of Choice, Ford

브랜드 가치를 비롯해 고연비와 디자인, 안전성, 기술력 등 자동차 선택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포드자동차는 이미 'Power of Choice'라는 모토로 하이브리드와 에코부스트 엔진, 디젤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고연비 엔진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어떤 브랜드보다 넓은 것. 5월에 열리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 역시 포드자동차의 이러한 강점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한다. 특히 디젤이 아닌 가솔린으로 다운사이징을 실현한 에코부스트는 터보차징이나 직분사 등 많은 측면에서 디젤엔진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연비 부담이 낮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엔진이다. 이번 모터쇼는 익스플로러 2.0과 토러스 2.0을 중심으로 에코부스트 엔진의 첨단 기술력을 소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강력한 토크감과 고연비를 실현한 디젤엔진을 탑재한 포커스 디젤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추가 정보로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라이징스타 링컨도 포드 옆 부스에 위치하니 둘러보자. 포드관에는 익스플로러, 이스케이프, 포커스, 퓨전, 토러스, 머스탱 등 9대가 전시되며 링컨관에는 MKC, MKZ, MKS, MKX 총 4대가 전시된다. 링컨의 경우 지난해 출시해 링컨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MKZ에 이어 콤팩트 SUV인 MKC가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다.

'Power of Choice'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포드자동차는 관람객이 그저 보기만 하는 '전시형' 모터쇼가 아닌, 직접 만지고 타보고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모터쇼를 지향한다. 관람객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모터쇼다. 이런 차별화된 전략은 지난해 열린 서울모터쇼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됐는데, 참가한 수입 자동차 브랜드 중 포드가 유일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높은 즉석 판매고를 올려 업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벅스 2관과 1관 앞 야외 두 곳을 활용해 1100m²가 넘는 면적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 포드는 부산모터쇼 참가 역사상 이번이 가장 큰 규모다. 특히 2관에서는 벤츠, 마세라티, 재규어와 랜드로버, 람보르기니, 렉서스 등 화려한 프리미어 브랜드와 경쟁하는 포드자동차의 빛나는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Ready, Go! Everyday Events

1관 앞 야외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핑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춘 7인승 SUV 익스플로러가 전시되는데, 다양한 캠핑 장비를 함께 디스플레이하고 차량의 기능과 특징을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이 캠핑 장비는 모두 응모와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한다. 캠퍼들을 자극할 만한 텐트, 바이크, 침낭, 테이블과 의자, 그릴 등의 제품이 준비된다. 2관 전시 부스 안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메인이벤트는 총 두 가지. LED 스크린을 이용한 댄싱 쇼는 런던에서 온 최고의 댄서들이 출연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드자동차의 기능과 특징에 관한 퀴즈 쇼를 진행해 정답을 알아맞춘 관람객에게 즉석에서 경품을 제공한다. 이 메인이벤트는 주중 1일 5회, 주말 1일 6회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수시로 서브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머스탱 50주년을 맞이해 머스탱 팬을 위한 즐거운 행사가 준비됐다. '머스탱 더 룩'은 아름다운 배경에서 있는 머스탱과 자신의 사진을 그 자리에서 합성해 해당 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 머스탱이 그려진 퍼즐을 빨리 맞추면 상품을 제공하는 '머스탱 퍼즐 보드 게임'은 부모님과 함께 부산국제모터쇼를 찾아온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전시된 포드자동차에 숨어 있는 QR 코드를 모으면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는 온라인 예매를 시작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부산국제모터쇼는 국내외 자동차 22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Figure Play

하이브리드가 대중화된 이때, 기술력에 대한 우위는 얼마나 개선을 잘해 완성도를 높이느냐로 판가름이 난다. 퓨전 하이브리드는 이전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은 수치로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Edito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포드 하이브리드의 미래

혁신적 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 기술이 된다. 누군가 일으킨 혁신을 수많은 경쟁자가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기술은 평준화되는 것. 그렇다고 우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평준화 이후부터는 완성도 싸움이다.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완성도를 높이는 누군가 선두에 서기 마련이다. 하이브리드는 미래 친환경 차로 가기 위한 혁신적 개념으로 평가받는다. 현존하는 내연 기관에 전기모터를 더해 힘과 효율성을 만족시킨다. 미래 친환경 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역할에 그칠 줄 알았던 하이브리드는 그 진가를 인정받으면서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 차와 수소연료전지 차 등 미래 차의 완전한 보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이브리드는 미래 차의 대안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는 거의 모든 메이커가 만들고 있다. 원리는 대

동소이다. 이전 있는 기술로 얼마나 최적화해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우열이 가려진다. **포드는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선두주자다.** 2005년에는 SUV 최초의 하이브리드인 이스케이프를 내놓았다. 이스케이프는 도심 연비가 리터당 18km에 이를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 게다가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실용성까지 갖추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스케이프에 이어 나온 퓨전 하이브리드는 패밀리 세단 시장에서 독보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세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C-맥스 하이브리드 역시 리터당 20km에 이르는 연비를 바탕으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포드 하이브리드의 결정체는 신형 퓨전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 대중화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추었다. 신형 퓨전은 하이브리드에

그치지 않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에너지(Energi)'라는 수식어가 붙은 퓨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동급 차 중 가장 높은 연비를 기록하며 포드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퓨전 하이브리드의 기술적 우수성은 이전 모델과 비교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보편화된 이때, 기술의 완성도는 제원상의 수치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례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6에서 20km로 대폭 향상(미국 연비 기준)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퓨전 하이브리드는 2013 그린 카 오버더 이어에 뽑히기도 했다. 또 J.D 파워가 조사한 연비 만족도에서 포드는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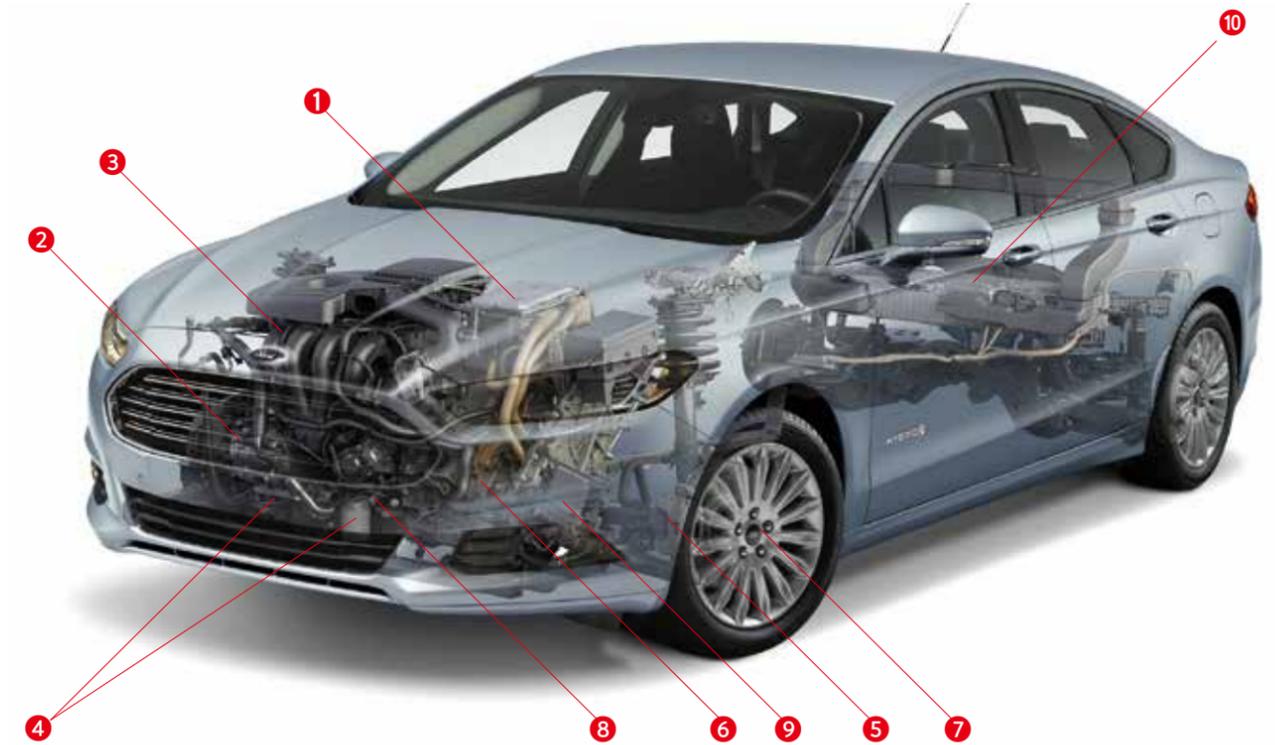


Change Point

기술 개선의 효과는 수치로 드러난다. 이전 모델과 제원을 비교하면 신형 퓨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수치 기준

- ❶ **2.5→2.0ℓ**
이전 세대는 2.5L 엔진을 얹었지만, 신형 퓨전 하이브리드에는 2.0L로 배기량이 줄었다. 엔진 출력은 156마력에서 141마력으로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출력은 큰 차이가 없다. 배기량을 줄임으로써 연비를 높이고, 차의 무게를 줄이는 등 더 큰 부가적 이득을 얻었다. 가솔린 다운사이징과 비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다운사이징이라고 할 수 있다.
- ❷ **191→188마력**
엔진은 작아졌지만 시스템 출력은 191마력에서 188마력으로 큰 차이가 없다.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이 최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가솔린엔진의 작아진 배기량을 만회한다.
- ❸ **16.6→20.0km/ℓ**
연비는 하이브리드에서 생명과도 같은 수치다. 하이브리드의 존재 가치는 연비로 드러난다. 신형 퓨전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복합, 도심, 고속도로 모두 리터당 20km다. 이전 모델은 복합, 도심, 고속도로 연비가 각각 리터당 16.6, 17.4, 15.3km였다. 향상된 연비 하나만으로도 퓨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
- ❹ **7.8→7.3초**
0→시속 97km 가속 시간도 0.5초 단축되었다. 엔진 배기량이 줄었지만 성능은 오히려 향상되었다. 효율성을 위해 배기량을 줄인 것이 성능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배기량은 줄이되 파워는 높이는 다운사이징의 법칙이 퓨전 하이브리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 ❺ **76→132km/h**
포드의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기모터

- 가 보조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모터만으로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욱 높다. 전기모터만으로 낼 수 있는 성능도 대폭 향상되었다. 가솔린엔진을 전혀 쓰지 않고도 전기모터만으로 시속 132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이전에는 시속 76km였다.
- ❻ **66→51ℓ**
연료 탱크는 66L에서 15L나 줄었다. 연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작은 연료 탱크로도 이전과 같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연료 탱크가 작아짐으로써 연료 탱크 자체의 무게는 물론 평상시 싣고 다니는 연료의 양이 줄어들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
- ❼ **1687→1663kg**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개선되었지만 무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성공적인 감량이 이루어져 연비는 물론 퍼포먼스도 향상되었다.



Fusion Hybrid System

퓨전 하이브리드의 비약적인 효율성 향상은 개선된 시스템 덕분이다. 구형 시스템에 비해 크기는 30%, 무게는 23%나 가벼워질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 ❶ **인버터 시스템 컨트롤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컨트롤을 관리.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변환기를 포함한다. 운전자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동시에 최적의 연료 효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 ❷ **에어 컨디셔닝 컴프레서**
전기 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했다. 압축기는 고전압 배터리 팩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온다. 따라서 실내에서 에어컨이 작동 중이더라도 엔진은 연료 절약을 위해 동작을 더 자주 멈출 수 있다.
- ❸ **2.0L 에코스 사이클 가솔린엔진**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내연 기관으로 움직인다. 전기모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내연 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고효율 4기통 엔진은 독립 가변식 캠샤프트 타이밍 기술을 써서 연료 효율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 ❹ **일렉트릭 워터 펌프**
메인 펌프는 엔진 냉각에 사용한다. 작은 펌프는 인버터 시스템 냉각과 엔진이 정지했을 때 히터 코어 냉각수 순환을 담당한다.
- ❺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최고 수준의 스티어링 감각을 실현하고,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기능을 담당한다.
- ❻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CVT 트랜스미션이 들어간다. 가솔린엔진의 작동과 전기모터 구동 간 최적의 조화를 이끌어낸다.
- ❼ **브레이크 에너지 회생**
자동차가 설 때는 브레이크에 엄청난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사라진다. 회생 브레이킹은 제동 시 통상적으로 손실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재생해 배터리에 저장한다.
- ❽ **일렉트릭 진공펌프**
에너지가 효율적인 파워 어시스트 브레이킹에 쓰인다.
- ❾ **엔진 컨트롤 모듈**
엔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❿ **어드밴스드 리튬이온 배터리팩**
이전의 니켈메탈에서 리튬이온으로 바뀌었다. 온도와 충전 상태를 파악하는 컨트롤 모듈과 12V로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Perfect Completion

익스플로러는 SUV 붐을 타고 온 좋게 뜬 반짝 스타가 아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변화한 끝에 완성한, 포드 SUV 전통의 산물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수년째 '베스트셀링 7인승 SUV'로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세상사를 세 단계로 요약하면 '필요→발전→완성'이라 할 수 있겠다. 대부분 마지막 단계인 '완성'만 보고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필요와 발전이다. 완성 앞 두 단계가 없다면 완성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세상에 불쑥 나온 제품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필요와 발전의 단계를 거쳤다. 21세기 생활 속 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스마트폰도 콘셉트나 사용 방식 등을 따진다면 PDA와 터치폰 등을 거쳐 발전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상용화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100여 년 전인 1899년에 처음 나왔다. 미니밴도 1980년대 초에 처음 나왔다고 알고 있지만, 비슷한 형태의 자동차는 이미 그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다. 결국 세상을 바꾼 제품도 따지고 보면, 필요에 의해 태어나 발전 단계를 거쳐 시대의

요구가 커질 때 완성의 단계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SUV인 익스플로러의 원조는 포드 브롱코다. 포드 브롱코는 1966년 데뷔한 SUV다(SUV라는 개념은 훨씬 이후에 등장했지만, 지금 갖다 붙여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SUV 개념에 근접한 차였다). 브롱코는 픽업트럭에 덮개를 씌운 형태의 차다. 픽업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포드 F 시리즈만 해도 1948년에 등장했다. 차고가 높고 짐을 실을 수 있는 데다 네 바퀴를 굴리는 픽업은 실용적이고 상용차로서 매우 훌륭했다. 그런데 픽업을 타다 보면 '발전'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적재함을 가려 짐을 보이지 않게 하고 모양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토대로 발전한 차가 브롱코다. 브롱코는 픽업트럭에 덮개를 씌운 형태로 거주성을 높이고 스타일을 멋있게 다듬은 차다. 거주성 좋

고 실용적이고, 4X4라 험로도 거뜬하게 주파할 수 있는, 승용차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

초창기 브롱코는 휠베이스가 2337mm 정도로 콤팩트급이었지만, 1978년 크게 변신하면서 풀 사이즈로 커졌다. 1984년 포드는 콤팩트 SUV 시장 공략을 위해 브롱코II를 내놓는다. 브롱코II는 브롱코와 달리 4WD 시스템도 옵션으로 분리하는 등 보다 '가벼운' 구성이었다. 브롱코가 2세대로 넘어가면서 크기가 풀사이즈로 커지고 엔진도 대배기량 V8 위주로 구성한 것과 달리, 브롱코II는 콤팩트 SUV답게 2.3~2.9L 위주로 구성했다. 브롱코II는 1990년 2월 생산이 종료되고 익스플로러에 바통을 넘겼다(브롱코는 1996년 익스플로러 위급인 엑스퍼디션으로 바뀐다).





SUV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익스플로러는 브롱코의 후속이지만 개념과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픽업에서 브롱코로 넘어갈 때처럼 새로운 '필요'가 등장한 것이다. 브롱코의 2도어 구조는 패밀리용으로 쓰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도어를 네 개로 늘리고, 뒤쪽의 짐칸을 개조한 것이 아닌 진정한 승객용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익스플로러라는 현대적인 SUV가 탄생했다.

1세대 익스플로러는 1990년에 나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패밀리카 시장은 스테이션왜건의 차지였다. 그러던 것이 SUV의 등장으로 급속히 SUV로 기울기 시작했다. 때맞춰 등장한 익스플로러는 커다란 차체와 넉넉한 실내, 다재다능한 공간 활용성, 박스형이지만 매끈하게 다듬은 스타일, 도심은 물론이고 오프로드도 능수능란하게 공략하는 달리기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

다. 익스플로러의 저력은 곧바로 시장에 드러났다. 출시 이듬해부터 중형 SUV 중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기 시작해 8년 연속 정상 자리를 지켰다. 1세대 익스플로러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쥬라기공원>에 관람차로 등장하기도 했다. 위장 크림을 바른 듯 컬러풀한 치장도 근사했지만, 관람차로 쓰기에 딱 좋은 차체 구조가 더욱 눈에 띄었다. SUV의 진가가 확연히 드러나는 적절한 배역을 맡은 셈이다.

1995년 2세대 모델이 등장했다. 각진 스타일에서 매끈하게 다듬은 보드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1세대에 픽업 스타일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면, 2세대는 완전한 SUV 느낌을 전했다. 4.0L V6 단일 엔진을 쓴 1세대와 달리 2세대에는 V8 5.0L가 추가되었다. 퍼포먼스가 향상된 데다 머스탱의 엔진과 같은 것으로, 머스탱의 튜닝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서 대배기량임에도 인기

를 끌었다. 2세대는 익스플로러의 전성기였다. SUV 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익스플로러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익스플로러는 강한 흡인력으로 왜건과 미니밴 수요까지 빨아들이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해마다 40만 대 이상 팔리며 미국 SUV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게 지켰다. 2000년에는 44만5157대가 팔려 승용차 베스트셀러인 토요타 캠리를 뛰어넘으며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휘어잡았다. 지금도 익스플로러 하면 2세대를 대표로 칠 정도로 2세대는 인상 깊은 스타일과 활약상을 남겼다. 2001년에는 3세대가 등장했다. '이름 빼고 다 바꿨다'고 할 정도로 전 부분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졌다. 터프한 남성미가 강한 2세대와 달리 세련미를 더해 도회적 이미지로 변신했다. 격자형 그릴로 중후한 이미지를 살리고 도심 주행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승차감을 승용차

에 가깝게 조율했다. 2006년에는 4세대를 거쳐 보다 세련된 이미지로 변신한다. 위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크롬 그릴과 사각형과 원을 조합한 헤드램프로 말끔하게 단장해 아스팔트 친화적인 SUV 시장의 흐름에 발맞췄다. 2010년, 5세대로 거듭난 2011년형 올-뉴 익스플로러는 SUV 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SUV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모든 것을 뜯어고쳤다. 4세대까지 익스플로러는 프레임 보디였는데, 5세대는 모노코크 방식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 트럭을 기반으로 한 차에서 승용차 기반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굴림 방식도 뒷바퀴 굴림 베이스에서 앞바퀴 굴림 베이스로 바뀌었다. 온로드 주행 성능과 핸들링이 향상되었고, 오프로드 성능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 4.6L V8과 4.0L V6

대신 4기통 2.0L와 3.5L V6로 바뀌었는데, 이는 다운사이징 추세에 맞춰 혁신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배기량을 줄였지만 에코부스트 시스템을 더해 힘은 오히려 강해지고 효율성은 높아졌다. 스타일은 미래적으로 변화했고, 인테리어 기능도 터치 기반으로 바뀌어 첨단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2011년 북미 국제오토쇼에서 익스플로러는 그해 '북미 트럭 오브 더 이어'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익스플로러는 1980년대 중·후반 SUV 시장 도래와 함께 등장한 것으로 기억되지만, 그 역사는 브롱코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롱코의 기원은 다시 포드의 픽업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익스플로러는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익스플로러는 포드를 대표하는 SUV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SUV로 통한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

다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런 SUV들은 익스플로러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익스플로러는 사람들을 잡아끄는 남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 매력은 바로 오랜 세월 함께한 친근함이다. 익스플로러는 1991년에 태어났으니 역사가 20년 조금 넘는다. 길지 않은 역사지만 뒤에는 브롱코와 픽업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가 뒷받침된다. 오랜 세월을 걸쳐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며 변신하고 발전한 결과가 익스플로러다.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에 공감하고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익스플로러는 SUV 붐을 타고 온 총계론 반짝 스타가 아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이 곧 순리다!

토러스는 이번으로 가득한 차다. 성능, 품질, 가격, 효율성 등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동안 생각해온 모습과 전혀 다른 높은 완성도를 갖췄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번은 아니다.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춘 것뿐이다. 이번으로 보일 뿐, 순리에 따른 결과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전세훈

4월 중순, 봄기운이 만연해야 할 4월이지만 날씨는 벌써 여름이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햇빛은 강렬하기만 하다. 봄이 끝나려면 5월은 지나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다니... 그리고 보니 3월에도 봄다운 날씨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언제부터인가 봄이 없어졌다고들 말한다. 실제 날씨도 그렇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구 곳곳에서 실 새 없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런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후는 순환하고 마침 이 시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때라는 주장이다. 산업화와 이 시기가 맞물리면서 우연찮게 인간에 의해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 자연의 주기에 따른 것이

든, 인간에 의한 것이든 기후는 변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자연의 보상 또는 자정 작용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순리다. 포드 토러스를 타고 서해로 향했다. 봄 같지 않은 여름 날씨지만, 한적한 지방도로를 달리는 여유는 날씨와 상관없이 차창 속으로 파고든다. 널찍한 토러스의 실내에 앉아 있기 때문에 더 여유로운지도 모른다. 토러스의 길이는 5.155m로 대형차급이다. 휠베이스도 2.867m나 되기에 실내도 앞뒤 모두 넉넉하다. 토러스급에서 이만한 크기의 차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히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큰 차는 운전하기 불편하다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넉넉하고 편안하다. 사람들이 이왕이면 큰 차를 선호하는 이유도 공간에서 오는 여유가 편안함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리라.

바람 따라 흘러간 곳은 제부도. 섬이지만 일정 시간에 바다가 갈라져 차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섬이면서 육지인 곳이다. 초입에 이르니 2km가 넘는 바닷길이 저 멀리까지 뻗어 있다. 바닷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평소 같으면 갯벌인 길옆에서 아직 빠지지 않은 바닷물이 찰싹거리며 치고 올라온다. 바다에 떠 있는 섬이 어느 순간 육지로 연결되니, 사람들은 제부도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 말하기도 한다. 신기함으로 따지면 이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석간만의 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의 순리다.

토러스는 3.5L와 2.0L 가솔린엔진을 얹었다. 이번에 제부도 가는 길에 함께한 차는 2.0L 버전이다. 2.0L 라... 이번도 이런 이번이 없다. 토러스 같은 덩치 큰 차에 2.0L가 말이나 되는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2.0L가 아니다. '에코부스트' 꼬리표를 달았다. 터보와 직분사 기술을 이용해 출력을 243마력까지 끌어올렸다. 최대 토크는 37.3kg·m로 3.5L 자연흡기 가솔린엔진과 맞먹는다.** 수치는 모자람이 없어 보이지만 덩치에 비해 작은 배기량 때문에 웬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달리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은 이내 사라진다. 일상적인 달리기는 물론, 추월이나 가속 등 힘 좀 써야 할 때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발휘한다. 변속기는 자동 6

단. 기어 레버를 S에 놓고 레버 옆 스위치를 이용해 수동 모드로 조절하면 2.0L 에코부스트 엔진의 잠재적 힘을 좀 더 수월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 토러스가 작은 배기량 엔진을 얹은 것은 이번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 시장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율성이다. 어떻게 하든 친환경적 방법으로 높은 효율성을 낼 수 있다면 용인하는 분위기다. 대배기량 엔진은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과급기로 힘을 키운 배기량 작은 엔진들이 득세하고 있다. 토러스도 결국 순리를 따른 셈이다. **배기량을 줄인 효과는 연비에서 나타난다. 2.0L 에코부스트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4km다. 이만한 크기의 차로 가솔린엔진을 얹고 두 자릿수 연비가 나온다는 사실부터 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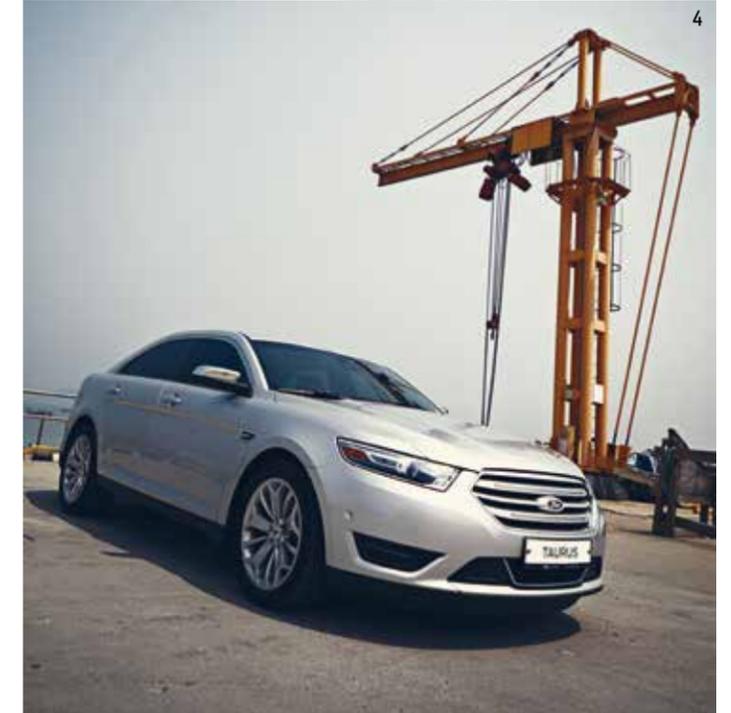
운 일이다. 3.5L V6를 얹은 토러스의 리터당 9.2km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실연비 또한 공인연비와 근접하게 맞아떨어진다. 200km가 넘는 거리를 도심, 고속도로, 국도로 섞어 달리고 에어컨도 켜고 테스트해본다며 좀 밟기도 한 후 최종적으로 트립 컴퓨터에 찍힌 연비는 리터당 10.2km. 3.5L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파워를 누리며 나온 연비라 더욱 만족스럽다. 사실 따지고 보면 토러스는 이번의 연속이다. 이번이라 고 판단하는 근거의 밑바탕에는 미국 차에 대한 선입견이 깔려 있다. 미국 차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나 어울리고 품질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승차감도 출렁거린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토러스는 이런 선입견의 기준에서 보면 미국 차가 아니다. 당연한 풍채를 지닌

스타일은 미국 시장이 아닌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감각이 묻어 난다. 더구나 5m가 넘는 장신이지만 맛있게 보이지 않도록 비율과 디테일을 잘 살렸다. 실내는 더욱 화려하다. 터치 방식으로 통일한 인터페이스, 스마트폰을 연상시키는 계기반과 센터 모니터가 첨단 분위기를 내는 데 한몫한다. 품질이나 감성도 기대 이상이다. 과거 토러스는 '대중적인 중형차' 신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적'이라는 수식어는 때도 될 정도다. 아니, 이제는 확실히 과거보다 한 단계 높은 시장으로 올라섰다. 탄탄함을 내재한 하체는 적절히 부드러워 편안한 승차감으로 이어진다. 움직임 역시 안정적이다. 칼 같은 날카로움보다는 패밀리 세단답게 유연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성향을 내비친다. 게다가 토크 벡터링과 커브 컨트롤을 갖춰 움직임은 더욱 안정적이다.

가격 대비 성능은 기대 이상이다. 2.0L 에코부스트 SEL의 가격은 3875만 원으로, 수입차는 비싸다는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하다. 시승차는 리미티드 버전으로 가격은 4445만 원. SEL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풍부한 장비가 가격 차이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마사지 시트, 자동 주차 보조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고급 첨단 장비로 가득하다. 바다의 풍경에 취해 잠시 한눈을 팔다 앞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니 경고음과 함께 앞유리에 빨간불이 번쩍거린다. 전방 추돌 경고 장치가 작동한 것. 비좁고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의도치 않게 차선을 넘나드니 어김없이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작동한다. **값비싼 차에나 달려 있을 법한 장비들이 토러스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은 그만큼 토러스가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뺄 것 다 뺀 차들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선입견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2.0L 엔진을 얹은 토러스도 선입견을 갖고 보면 탈 차가 못 된다. 2.0L 엔진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차가 크니 기름도 많이 먹을 테고, 미국 차니 출렁거릴 테고, 대중적인 차라 별 볼일 없고, 수입차라 비싸고... 그런데 토러스를 타는 순간 선입견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2.0L 에코부스트 엔진은 힘이 넘치고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탄탄하고 대중 차를 넘어선 품질을 갖췄고, 수입차지만 합리적이고... 선입견을 반대로 뒤집으면 토러스의 실체에 대한 정답이 나온다. 이러한 반전은 이번 중 이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은 아니다. 관찰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토러스는 계속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이라고 생각한 토러스의 우수성은 결국 순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다.

1 토러스의 탄탄함을 내재한 하체는 적절히 부드러워 주행 시 편안함 승차감으로 이어진다. 2 5m가 넘는 장신이지만 맛있게 보이지 않도록 비율과 디테일을 살렸다. 3 마사지 시트, 자동 주차 보조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고급 첨단 장비로 가득하다. 4 품질과 가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토러스의 위풍당당한 모습.



Taurus Check Point

- 1 토러스의 길이는 5.155m로 대형차급. 휠베이스도 2.867m로 대형차급이다.
- 2 토러스 2.0L 버전 에코부스트 엔진 장착, 터보와 직분사 기술을 이용해 출력을 243마력까지 끌어 올렸다.
- 3 토러스 2.0L 에코부스트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4km로, 이만한 크기의 차로 가솔린엔진을 얹고 두 자릿수 연비가 나온다.

위압적인 차체를 거뜬히 이겨내는 힘과 안정성. 놀라운 기술력이 곳곳에 담긴 토러스는 당신의 카리스마에 화룡점정을 찍는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토러스가 가진 수많은 특별한 사양 중 어렵게 다섯 가지를 꼽았다.

Editor 강미라

Hidden Power Taurus

1 전복 방지 시스템

토러스에는 일반적으로 SUV 차량에 주로 장착하는 RSC(Roll Stability Control), 즉 전복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이는 차체 제어 장비에 추가로 장착된 안전 모듈로,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기 전에 접지력 등을 인지해 차량이 전복되는 것을 막아준다.

2 토크 벡터링 컨트롤 & 커브 컨트롤

토크 벡터링 컨트롤은 코너를 도는 동안 안쪽 앞바퀴에 미세한 제동력을 가해 가속 중에도 적절한 토크가 노면으로 전달되도록 해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여기에 급격한 커브에서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커브 컨트롤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커브에 진입하면 1초 만에 최대 시속 16km까지 주행 속도를 떨어뜨린다.

3 드라이버 어시스트 패키지

드라이버 어시스트 패키지(Driver Assist Package)가 더해진 Limited나 SHO 모델에는 빈 공간을 향해 스스로 주차를 하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기능과 주행 차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감지되면 경고를 보내고 스티어링 휠에 반발력을 가하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제동 보조 기능이 있는 추돌 경고 시스템은 전방 추돌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경고를 내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미리 준비한다. 차량 양쪽의 사각지대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감지하는 기본 장비인 일체형 블라인드 스팟 미러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4 멀티 컨투어 시트 & 세이프티 캐노피

Limited와 SHO 모델의 앞좌석에는 운전 집중할 수 있도록 시트의 굴곡을 조절할 수 있는 10-way 파워 가죽 시트를 장착했다. 여기에 허리 아래에서 종아리에 이르는 부분을 마사지할 수 있는 액티브 모션(Active Motion[®]) 기능까지 즐길 수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충돌하는 순간 수많은 센서로 이를 감지한 뒤 운전자의 앉은 위치, 시트의 각도, 체구 등에 따라 여섯 개의 기본 에어백이 터지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탑승자를 보호하는 세이프티 캐노피(Safety Canopy[®]) 시스템을 장착했다.

5 뛰어난 효율성의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 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된 토러스는 배기량 다운사이징 엔진의 정수를 맞출 수 있는 차다. 최고 출력 243마력, 최대 토크 37.3 kg·m에 연비는 고속도로 기준 13.3km/L로 연료 소모는 최소화하면서도 출력은 상위 모델에 준한다. 이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 배기가스를 터빈 휠 회전의 에너지 동력원으로 재사용하는 시스템 등이 도입돼 가능해졌다. SHO 모델에는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을 도입했으며 사륜구동 시스템과 사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를 장착해 역시 고성능과 경제성을 함께 갖췄다.





호주 시드니 머스탱 글로벌 론칭쇼를 가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3일간 포드 6세대 머스탱을 최초로 공개하는 호주 시드니 글로벌 론칭 현장에 다녀왔다. 2014년 포드 머스탱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자인, 혁신적 기술, 세계 최상급 성능을 갖춘 6세대 올-뉴 머스탱을 곧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ditor 이희진(정리) Cooperation <라이트매거진> 편집부



새로운 포니카의 등장

저녁에 진행된 행사는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 4대륙 여섯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본사가 위치한 디어본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 상하이 그리고 시드니가 그곳이다. 첫 번째 행사는 참가자들이 모여 오페라하우스가 마주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이곳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행사가 진행될 ATP(Australian Technology Park)로 이동했다. 공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되는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쇼와 시간을 맞췄다.

행사장에 도착한 일행을 처음 반긴 것은 건물 입구를 파란색 LED 조명으로 비추고 있는 커다란 'FORD' 로고였다. 내부로 들어가니 총 다섯 대로 초대 머스탱부터 시간별로 각 세대별 모델을 전시해놓았다. 행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 설치한 크고 작은 모니터에서는 상하이와 바르셀로나 등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 중인 행사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그쪽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동시에 생중계한다는 사실을 관람객에게 강조했다. 그리고 포드 호주 CEO의 인사말을 비롯해 6세대 머스탱의 특징점을 설명한 영상과 함께 주행 동영상 등을 계속 틀어놓았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6세대 머스탱의 공개를 축하하기 위해 호주의 유명 여성 밴드 '스톤필드(Stonefield)'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흘러 드디어 6세대 머스탱을 공개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을 하듯 6세대 머스탱의 등장을 반겼고, 드디어 무대 정면의 가림천을 통해 신형 머스탱이 등장했다.

전통을 살리면서 변화를 꾀하다

붉은색 가림천 속에서 6세대 머스탱의 라이트가 빛나고 있었다. 머스탱의 등장에서 사람들은 환호했다. 행사장을 울리는 웅장한 엔진 소리가 나더니 가림천 속 머스탱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6세대 머스탱이 등장하는 순간 가장 궁금했던 것은 사진으로 보던 프론트 디자인의 느낌이 실물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어느 곳을 봐도 분명 새로운 머스탱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우선 사크 노즈라는 프론트 형태 등 전통적 머스탱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각 부분을 최대한 현대적인 느낌이나도록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역대 머스탱의 매력이 가장 잘 응축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6세대의 실물 모습은 충분히 남성스럽고 와이드하며 변한 프론트 디자인과 연결된 선과 면은 세련된 조형미가 도드라진다는 느낌이다. 6세대 머스탱 보다 디자인의 키워드는 와이드&로(Wide & Low). 전체적으로는 5세대 모델보다 사프하고 모던한 취향으로 완성됐고, 과거 모델들과 비교하면 1세대의 패스트백 느낌도 강하다. 긴 후드와 패스트백의 조화는 넉넉했던 당시의 정서를 잘 표현한 것 같다. 전작과 비교할 때 길이는 거의 동일하면서 폭은 확대된 반면, 전고는 3mm 정도 낮춰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이 강해졌다. 6세대 머스탱은 더 깊은 굴곡을 주면서 다이나믹한 캐릭터 라인을 완성했다. 그리고 프론트 그릴 중앙과 리어의 트렁크 정면에 위치한, 빛나는 은색의 커다란 달리는 말 엠블럼은 머스탱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해준다. 인테리어는 전작과 비교하면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 운전 중 운전자에게 즉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인체공학적으로 뛰어난 조작성을 보장하는 조종석을 실현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전통적인 머스탱의 스타일을 따랐지만 디자인은 단순히 전통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 장비를 갖추면서 보기 좋게 타협한 모습이다. 포드는 이번 6세대 머스탱을 공개하면서 디자인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혁신을 이루었다. 먼저 심장부터 살펴보면 엔진은 모두 세 종류가 공급된다. 최상급 그레이드인 GT 모델에는 최고 출력 420마력, 최대 토크 53.9kg·m를 발휘하는 5.0L V8 코요테 엔진을 탑재했다. 개선된 산형 엔진은 현행 머스탱 보스 302의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을 적용해 흡배기 밸브를

키우고, 캠 샤프트도 바꾸고, 실린더헤드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것이다. 고속에서도 진동을 줄이기 위해 단조 크랭크축을 채용했다. 여기에 최고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37.3kg·m를 발휘하는 3.7L V6 엔진을 제공한다. 이는 현행 모델의 캐리오버다. 이 엔진은 부드러운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머스탱의 베이스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2.3L 직렬 4기통 에코부스트 엔진이다. 이 엔진은 V6 엔진을 웃도는 최고 출력 305마력과 최대 토크 41.5kg·m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개선된 게트라그(Getrag) 6단 수동변속기는 변속감을 개선했으며, 패들 시프트(Paddle Shift)를 지원하는 실렉트 시프트(Select Shift) 6단 자동변속기가 커풀링되어 보다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패들 시프트는 머스탱에 최초로 지원되는 것으로 전통적 파워 스티어링은 어시스트를 운전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스펜션을 알아보면, 전륜은 경량의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이다. 더블 볼 조인트를 채용한 맥퍼슨 스트럿은 측면 링크, 텐션 링크 그리고 스트럿에 너클을 지지하는 구조로 고강성의 페리미터형 서브프레임과 조합되어 있다.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은 결국 리지드 액슬을 버리고 인테그럴 링크식의 독립 서스펜션을 채용했다. 알루미늄 로어 H-암을 채용했고 인테그럴 링크 등으로 너클을 지원하는 독특한 멀티 링크식으로 되어 있다. 너클의 소재는 알루미늄으로 스포링 아랫부분의 중량을 경량화한 것 역시 매력 포인트. 사륜 모두 독립 서스펜션이 된 것이다. 이제 드래그 팬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진다. 포드 측은 이런 서스펜션의 변화로 안티스쿼트(Anti-Squat), 안티다이브(Anti-Dive), 안티리프트(Anti-Lift) 성능이 두 배 이상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포드는 핸들링 성능의 향상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듯하다. 행사장에서 만난 담당자들도 역사상 가장 민첩한 포니라고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다. 6세대 머스탱을 직접 몰아보진 못해도 이런 자신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4기통 엔진과 독립식 리어 서스펜션의 채용이 50년간 이어진 머스탱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화이기 때문이다.



기 보양 심

이스케이프와
함께 떠난 전남 담양
봄을 담은 옛 고을

고려 때부터 지금의 이름이었다는 담양에서 보낸 시간은 꿈속처럼 여유로웠다.
햇빛에 반짝이는 햇살과 그 사이로 싹하고 부는 바람, 낯선 이의 집 마당을 훑쳐볼 수
있는 낮은 토담. 옛 사람의 시와 노래가 전해지는 오래된 정원을 거닐다 보니 이곳의
봄은 가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았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이유미





1



2



3



4

수려한 담양의 풍광을 만끽하다

서울의 봄도 제법 완연하다 싶었는데, 이스케이프와 함께 남쪽으로 달릴수록 그동안 봄의 진짜 모습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먼 산부터 가까운 도로까지 완두콩처럼 연한 초록빛이 싱그러wie 흔들리니, 도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담양으로 향하는 여정은 계절의 변화와 그 아름다움에 새삼 놀라며 시작됐다. 그만큼 도시의 일상에 지친 것이라. 평일의 한적한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이스케이프와 함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인 전남 담양에 입성했다.

무등산, 추월산, 금성산, 병풍산 등이 솟아 있고,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데다 영산강이 발원하는 덕분에 풍광이 수려한 담양은 봄의 기운으로 충만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여정을 정했다. 주저 없이 스티어링 휠을 돌린 곳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는 학동리. 여행차, 출장차 담양에 몇 번 와봤지만 봄의 메타세쿼이아 길은 한 번도 달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양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24번 국도가 바로 국내 드라이브 코스 중 아름다기로 손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담양에 가로수 시범사업이 한창이던 1970년대 조성됐고, 지금은 20m를 훌쩍 넘는 큰 가로수가 됐다. 사계절 모두 아름다우지만, 봄에 만난 이곳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를 만끽하고 싶어 이스케이프와 느긋하게 달려보았다. 아득하기만 하던 메타세쿼이아 길이 금세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78-4
문의 061-380-3154

숲에서 이는 사색과 문화의 향기

이스케이프와 특별한 추억을 만든 후, 근방에 위치한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둘러보는 담양 여행 코스의 정석을 따르기로 했다. 향교리 언덕배기에 조성한 죽녹원은 '죽향(竹鄕)'으로 유명한 담양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16만여㎡ 규모의 울창한 대나무숲을 모두 둘러보면 꽤 시간이 걸리지만 다양한 테마의 산책길로 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오히려 댓잎이 바람에 스치는 묘한 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죽림욕은 오래 잊히지 않는 경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심신이 많아지는 기분이었다.

죽녹원에서 나와 아래로 내려가면 담양천을 따라 관방제림이 호젓하게 들어서 있다.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조나무·네티나무·팽나무·옴나무·개서어나무·은단풍 등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숲인 동시에 조선시대에 만든 뿌리 깊은 숲이다. 관방제림을 걷다 보면 개관한 지만 4년이 됐다는 '대담미술관'도 만날 수 있다. 해외 큐레이터·작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준 높은 전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작가 마사미 하야시 등이 대담미술관에 머물며 작업을 했고, 전시도 열었다. 더불어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 등도 적극 돕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특히 향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가로 데뷔한 '타일문패전'도 대담미술관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이 타일문패들은 실제로 향교리 골목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죽녹원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문의 061-380-2680
대담미술관 위치 전남 담양군 언골길 5-4
문의 061-381-0081

Gourmet Guide 카페 대담

대담미술관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 대담은 넓은 야외 테라스와 채광이 훌륭한 인테리어를 갖추어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는 핫 플레이스다. 커피 원두부터 다이닝 메뉴의 식자재까지 엄선해 사용하는 것도 이유다. 유기농 호밀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는 브런치로 인기 있다. 고기를 넣지 않고 채소와 파인애플 소스 등으로 맛을 낸다. 최근에 처음 선보인 죽순화덕피자는 담양의 특산물인 신선한 죽순과 시금치, 생치즈가 듬뿍 담겼다. 카페 대담의 수익은 지역 예술가 지원 등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위치 전남 담양군 언골길 5-4
문의 061-381-0081



5



6



7

1 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 대담미술관의 복합 문화 공간 2 호젓한 관방제림의 담양천을 배경으로 선 이스케이프의 모습 3 향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린 타일문패를 골목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4 죽향의 고을답게 곳곳에 시원한 대숲이 솟아있다 5 카페 대담의 인기 메뉴, 호밀빵 샌드위치와 죽순화덕피자 6 죽녹원 뒤편에는 대나무 공예인 채상장 전수 교육관이 있다. 교육관 마당에서 만난 향아리 화단 7 담양 성인산 일대에 조성된 죽녹원. 댓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절로 힐링이 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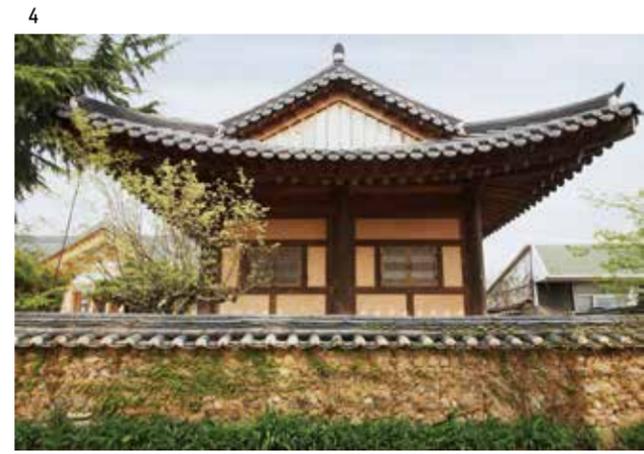
1 단아한 풍경을 자랑하는 조선 최고의 민간 원림, 소쇄원 2 창평 삼지내마을의 몇몇 한옥 민가에서는 숙박과 함께 슬로푸드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3 삼지내마을 내에 위치한 갑을원의 오리 코스 요리 4 창평 삼지내마을의 토담길 풍경 5 레스토랑 두 번째 서랍의 냉파스타. 신선한 채소와 오리엔탈 소스의 풍미가 잘 어울린다. 6 이스케이프의 안정된 주행력 덕분에 시골길을 달려도 끔찍없다.



3



2



4



5

선비들의 멋과 정신에 취하다

담양엔 대나무밭이 지천이지만 송강정·식영정·환벽당·소쇄원 같은 누정(樓亭)이나 원림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이곳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가사문학이 크게 발전했는데, 이 중 소쇄원은 시인 목객들이 수많은 시를 짓던 곳이자 김인후, 송순, 정철, 송시열 등 당대 최고 선비들이 풍광을 감상하며 문화 담론을 즐기던 곳이다. 향교리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시 여장을 챙겨 나선 곳은 소쇄원. 88올림픽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창평으로 들어서면 된다. 덕분에 이스케이프의 안정적인 주행감을 만끽하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유유히 흐르는 개울에 맑은 햇살이 비껴들던 봄의 소쇄원은 단아했다. 조선 최고의 민간 원림이라는 소쇄원의 명색이 500여 년의 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소쇄원(瀟灑園)의 소(瀟)는 '빗소리 소'나 '물 맑고 깊을 소', 쇠(灑)는 '깨끗할 쇠'라는 뜻이다. 소쇄원의 대표적 구조물인 제월당(霽月堂)은 '비 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빛과도 같다'는 뜻이고, 광풍각(光風閣)은 '기슭에 품은 뜻의 맑음이 마치 비 갠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과도 같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되새기는 것만으로 시적 감응이 절로 일고, 옛 선비의 멋에 흠뻑 취하는 듯했다. 소쇄원에서 오던 길로 다시 나오면 한국가사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담양·무등산 자락에 쏟아진 시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은 가사와 한국문학 서적 1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가사문학의 길을 연 면양정 송순이나 정철 송강의 유물도 직접 볼 수 있어 둘러볼 만한 곳이다.

소쇄원 위치 전남 담양군 남면 소쇄원길 17

문의 061-382-1071

Gourmet Guide 두 번째 서랍

레스토랑 '두 번째 서랍'은 소쇄원 들어가는 길 왼쪽에 있다. 연 1회 정도 메뉴를 리뉴얼하는데, 한식과 이탈리아 등을 접목한 퓨전 요리를 내놓는다. 최근에 선보이는 것은 뚝배기 해물 누룽지 파스타, 새우와 닭다릿살로 만든 스테이크, 오리엔탈 소스와 직접 키운 채소 등으로 신선하게 내놓는 냉파스타 등이다. 식사 시에는 정성으로 끓여낸 단호박 타락죽을 애퍼타이저로 내놓고, 가끔 마당에서 직접 뜬은 맨드라미 꽃잎으로 우려낸 차도 맛볼 수 있다. 광주호가 근방에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 있다.

위치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749

문의 061-383-2667

느리게 토담길을 걷다, 창평 삼지내마을

1999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찾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꾸려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이후 19개 국가, 12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아시아 최초로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이 지정되었다. 1510년경 형성된 삼지내마을은 동쪽에 월봉산, 남쪽에 국수봉이 있으며 마을 앞을 흐르는 천의 모습이 봉황이 날개를 뻗어 감싼 형국이라 해서 삼지천(三支川)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안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입구에 잠시 이스케이프를 세워두고 나섰다. 돌과 흙으로 쌓아 만든 담장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즈넉했고, 휘어진 골목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삼지내마을엔 지금도 전통 한옥이 여러 채 남아 있다. 시도민속자료 제5호 '담양 고재선 가옥'을 비롯한 문화재도 볼 수



6

있다. 달구지민박, 돌담집민박, 하심당 등의 이름으로 민가에서도 한옥 민박을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슬로시티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슬로푸드' 운동 연장선상에 있기에 삼지내마을도 창평쌀엿, 약초 반찬, 족편, 한과, 만덕산 칩으로 만든 음식 등 고유의 레시피를 지키고 있다. 직접 체험하거나 맛볼 수도 있다. 삼지내마을을 나와 기다리는 이스케이프에 올라탔다. 담양에서의 이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느긋하게 풀어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더없이 풍족한 여행.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 아쉽거나 무겁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위치 전남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56-24

문의 061-383-3807

Gourmet Guide 갑을원

널찍한 마당과 전통 한옥이 멋스러워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갑을원은 최고급 국산 유향오리를 이용한 코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샐러드, 오리가슴살 스테이크, 떡갈비, 훈제오리, 오리 사부사부, 약밥 등이 차례로 나온다. 모두 조미료를 넣지 않고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린 건강식이다. 실속 없이 '떡 벌어지게만 차린' 밥상이 아니라, 신선한 재료 공수에 신경 쓰고, 정갈하게 밥상을 차리는 것이 갑을원의 경영 철학이다.

위치 전남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67

문의 061-381-6886

Ola! Portugal Lisbo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 친구가 애타게 꿈꾸던 도시, 리스본. 포드코리아가 이벤트를 통해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여덟 명의 고객을 선정했다.

5월 24일 결승전이 열리는 에스타디우 두 스포르투 리스보아에 벤피카 경기장을 비롯해 포르투갈 리스본의 아름다운 명소를 떠난 여행.

Editor 이희진 참고 서적 <클리 플래닛 트래블 가이드-스페인&포르투갈> 안그라픽스 편집부 저, 안그라픽스 출판



1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과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풍경 2 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아티스트 3 '코메르시우 광장' 북쪽 개선문 앞에는 폼발 후작과 바스쿠 다 가마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4, 5 테주강 연안에 있는 마누엘 양식이 아름다운 '벨렘 탑'.

유럽의 최서단에 자리한 대서양 연안의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대항해 시대의 꿈과 낭만을 고스란히 간직한 나라다. 먼 옛날, 가장 많은 영토를 식민 통치한 포르투갈은 침략과 변영, 패배 등 굴곡도 많았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포르투갈어로 '리스보아(Lisboa)'라고 한다. 리스본은 테주 강(타호강)의 삼각하구 우안에 위치한 이 나라 최대 도시다. 리스본의 시가지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중앙부는 '바이샤'라고 불리는 저습지로 거의 전 지역이 지진 후 재건해 상업·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다. 동부는 본래 페니키아인·로마인의 거리였던 구시가지, 서부는 신시가지다. 또 최근의 시가지 확장은 북부로 뻗어나가고 있다. 1755년에 일어난 대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해일로 시가지의 3분의 2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적 건물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동부의 알파마 지구에는 상 조르즈 성이, 서부의 벨렘 지구에는 본래 성채였던 벨렘 탑, 바스쿠 다 가마를 기념한 고딕양식의 수도원과 아주다 궁전·박물관 등 역사적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아름다운 광장을 만나다

'로시우 광장'의 공식 명칭은 '돔 페드로 광장'이지만 로시우 광장으로 더 많이 불린다. 광장 중앙에 우뚝 솟은 원기둥 정상에는 돔 페드로 4세의 동상이 있다. 돔 페드로 4세는 독립 브라질의 첫 번째 왕으로, 포르투갈 중심지에 브라질의 첫 번째 왕의 동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관계를 말해준다. 광장은 13세기부터 리스본의 중심지로 모든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행해졌고, 과거 종교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오랜 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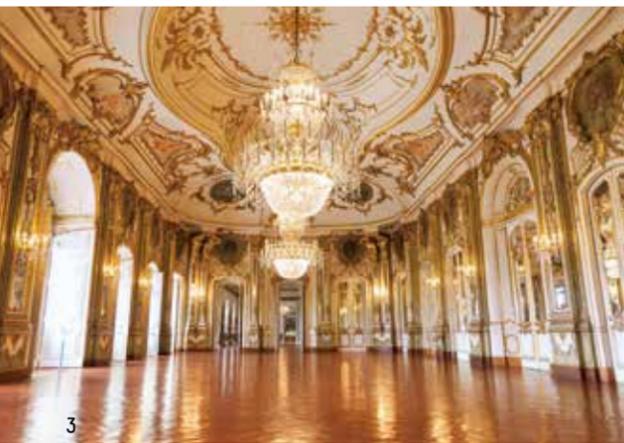
흐른 지금도 리스본의 중심 역할을 하는 리스본의 상징적 광장이다. 다양한 노선의 버스과 트램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아 리스본 시민과 관광객으로 항상 북적인다. 리스본 최대 규모의 '코메르시우 광장'은 테주 강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이곳에는 마누엘 1세의 '리베이라 궁전'이 있었으나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궁전이 파괴되고 폼발 후작의 도시 계획으로 광장을 만들었다. 광장 중앙에는 조르즈 1세의 업적을 기리는 기마상이 있고, 광장 북쪽에는 19세기에 세운 개선문이 있는데 폼발 후작과 바스쿠 다 가마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광장 남쪽에 있는 돌계단을 이용해 강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폼발후작 광장'에는 18세기 후반 포르투갈의 정치·경제·교육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정치가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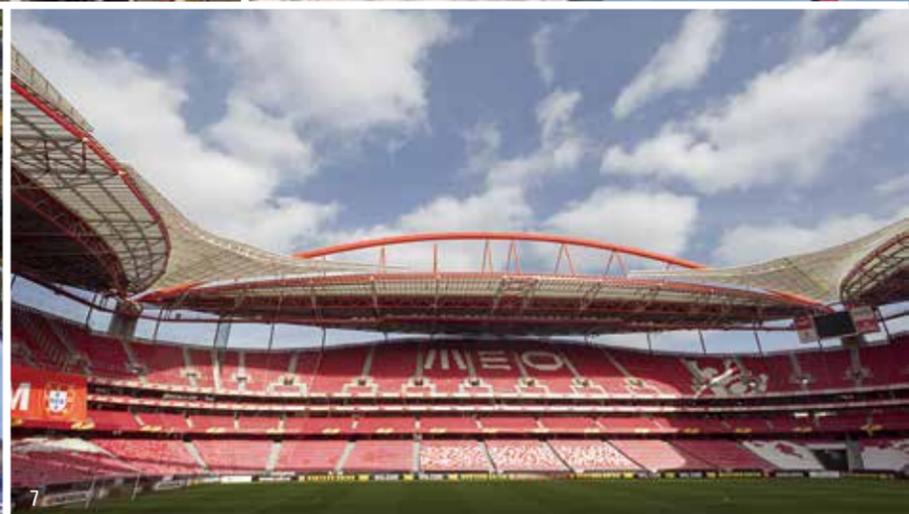
4



5



6



7

1 리스본 동부 지역 알파마의 '상 조르즈 성'에서 바라본 도시 이국적인 전경 2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방문을 기념해 만든 '에두아르두 7세 공원'. 3 리스본에는 로마네스크·고딕 양식이 융창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카사드 비코스 궁전' 내부. 4 포르투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 5 '리스본 발견 기념비'는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의 용감한 선원들과 후원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6 알파마 지역은 리스본 대지진 때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 구 시가지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7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에스타디우 다 루스' 축구 경기장 전경.

포말 후작의 동상이 있다. 1755년 대지진 이후 리스본 시가지 건설의 주역이었던 그의 동상은 리베르타데 대로를 내려다보고 있다. '부흥자'라는 의미를 지닌 '레스 타우라도레스 광장'은 신시가지에 있으며, 포르투갈의 재독립을 기념하는 첨탑이 있다. 이처럼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광장에는 빼어난 역사와 함께 그들만의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듯하다.

테주 강 부근의 아름다운 건축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동부 지역인 '알파마'는 테주 강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리스본이 발전하기 시작한 최초의 땅이다. 리스본 대지진 때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로마시대 및 아라비아 지배시대의 시가지와 1500년대의 민가가 남아 있다. 흰 벽 사이로 미로 같은 돌길과 강 쪽을 향해 뻗어 있다. 언덕 부분에는 무어풍의 건축이 남아 있는 '상 조르즈 성'을 비롯해 로마네스크·고딕 양식의 '성 안토니아 교회'와 16세기의 '카사드 비코스 궁전' 등이 있다. '상 조르즈 성'은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성문 안쪽 전망대 광장에는 이 성을 함락시킨 포르투갈 초대 왕 엔리케의 동상이 있다. 고대 로마 지배시대인 5세기경 로마인이 구축했고, 9세기에는 이슬람교도인 무어인이 성을 축성했다. 국토 회복에 성공한 역대 포르투갈 왕들도 알파마 지구를 비롯해 항구와 테주 강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이 성의 군사적 이점을 살려 계속 요새로 사용했다고 한다. 성곽 내부는 옛날 궁전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지금은 울창한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

리스본이 자리한 테주 강 하구는 바다와 상당히 가깝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벨렘 탑'은 테주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육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15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 지은 이 마누엘 양식의 3층탑은 현재 리스본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여겨진다. 옛날 왕족의 거실로 이용되던 3층 테라스, 2층에는 항해의 안전을 수호하는 '벨렘의 마리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벨렘 탑은 선박 출입을 감시하는 요새이기도 했고, 모든 탐험대의 전진기 지이기도 했다. 탐험가들은 오랜 항해를 떠나기 전 마치

막으로 벨렘 탑을 보았고, 또 돌아와서 처음으로 벨렘 탑을 보았다. '에두아르두 7세 공원'은 영국 에드워드 7세의 1902년 리스본 방문을 기념해 만든 곳이다. 신시가지 중심 거리인 리베르타데 대로(자유대로) 북쪽 끝에 있다. 중앙에 기학적 무늬의 화단이 있어 4~5월이면 아름다운 꽃이 만개한다. 정상으로 향하는 오른쪽에는 스포츠관이 있고, 정상 왼쪽에 에스투파 프리아라 불리는 곳이 있다. 열대식물로 뒤덮인 이곳에는 동굴·폭포·연못 등이 있으며, 시민을 위한 콘서트가 자주 열린다. 공원 정상에서는 리스본 시내와 테주 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풍광이 낮을 잃고 바라볼 정도로 아름답다.

'리스본 대성당'은 12세기 그리스도교도가 이슬람교도로부터 리스본을 탈환한 뒤 건축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다. 대지진 때에도 파괴되지 않은 건축물로, 내부와 외부 모두 로마네스크 양식이 주를 이루지만 디니스 왕이 건조한 고딕 양식의 회랑과 대지진 후 다시 지은 바로크 양식의 제단 등 여러 양식이 섞여 오랜 역사의 변천을 보여준다.

프랑스계 포르투갈 구조 엔지니어 라울 메스니에르 드 풍사르의 작품인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구시가지 안에 있는 카루루 거리와 아우레아 거리 사이의 엘리베이터다. 철로 만든 형태는 에펠 탑의 축소판처럼 보이지만, 모양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2002년 포르투갈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45m 높이로 두 대의 승강기에는 각각 2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엘리베이터의 정상 카페에서 리스본의 정취를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리스본은 볼거리가 많다. 포르투갈의 판테온이라 불리는 '산타 엔그라시아 교회', 프랑스 국왕 루이의 명으로 설립한 '해양 박물관', 스페인 방면으로 국제 열차가 출발하는 '산타 아폴로니아 역', 리스본 벨렘 지구의 '마차 박물관', 구시가지의 '리스본 국립극장'도 빼놓지 말고 둘러볼 것. 또 리스본에서 고급 숙소를 찾는다면 '리츠 호텔'을 추천한다. 럭셔리로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호텔이다. 언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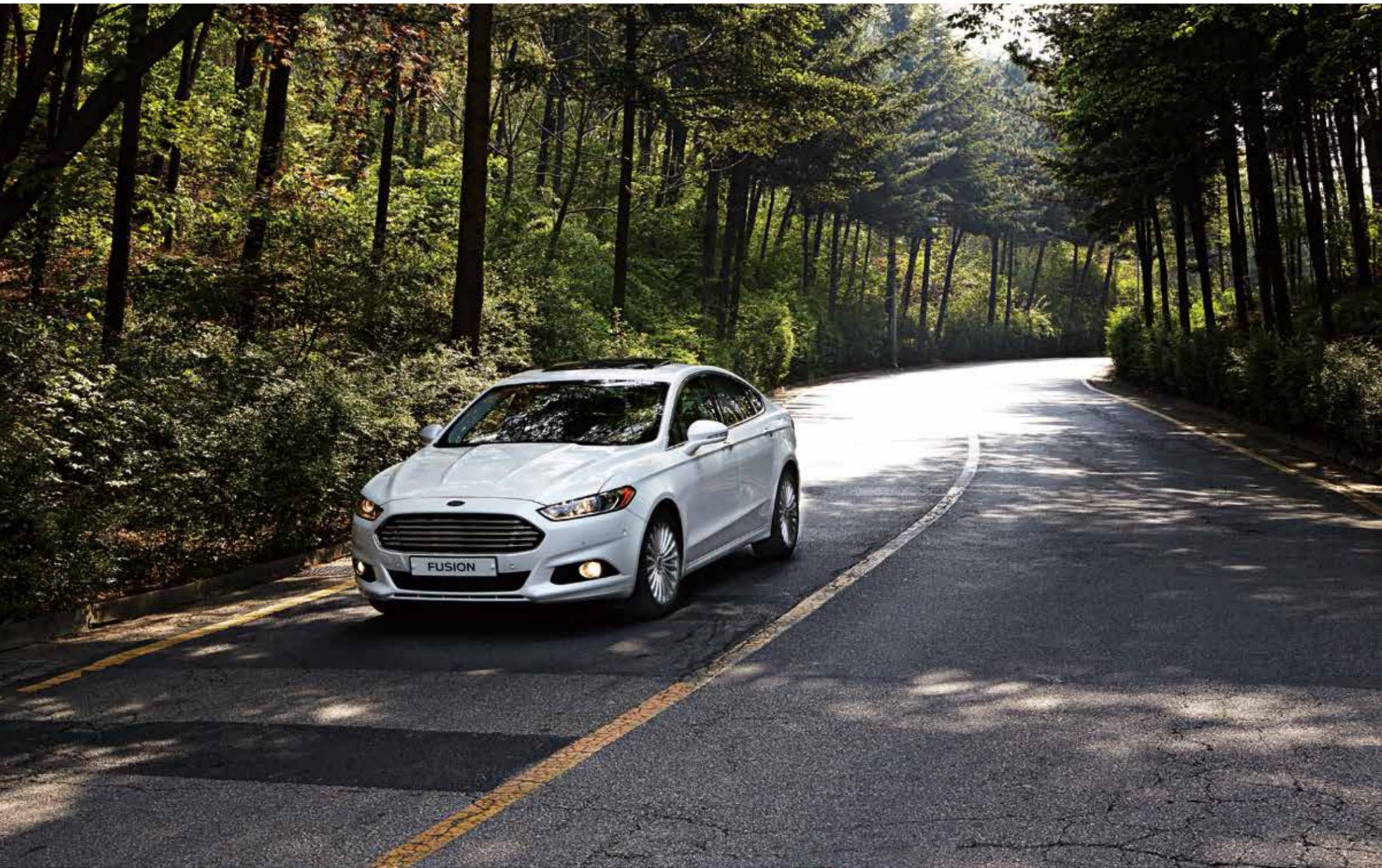
보면 리스본의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깜짝 놀랄 만큼 고급스럽다. 널찍하고 아름다운 장식의 스위트룸은 대리석 욕실, 커다란 마호가니 캐노피 베드, 새틴 나무로 만든 엔틱 화장대, 호화롭기 짝이 없는 카펫 등으로 꾸며놓았다. 호텔 레스토랑 '바란다(Varanda)'는 리스본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꼽히며, 도시의 상류층 인사와 유명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에드워드 7세 공원, 상 조르즈 성, 테주 강 등 리스본의 랜드마크를 아우르는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한다.

포드와 함께 떠나는 열정적인 축구의 나라

축구에 대한 포르투갈인의 열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포르투갈에서 축구는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축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에우제비오, 피구, 호날두 등 포르투갈이 배출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릴 구장으로 '에스타디우 두 스포르투 리스보아 에 벤페카'가 결정돼 1967년 이후 처음으로 리스본에서 유러피언 컵 결승전이 열린다. '에스타디우 다 루스(빛의 구장)'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이 경기장은 SL 벤페카의 홈구장으로 2003년 첫선을 보인 이래 UEFA 유로 2004 본선 몇 경기를 비롯해 결승전을 치른 구장이기도 하다. 포드코리아는 이벤트를 통해 이곳에서 열리는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관람 기회를 여덟 명의 고객에게 선물했다. 포드의 풀 옵션 대형 세단 토러스 및 베스트셀링 SUV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포드 전 차종을 시승한 고객들에게 오는 5월 24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관람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포드가 21번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퍼스트클래스 결승전 티켓과 포르투갈 리스본 왕복 항공권, 그리고 4박 5일 숙박을 포함한 여행 패키지를 증정했다.

리스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행운의 여신이 함께한 셈이다.



滿! 滿!! 滿!!!

등잔 밑이 어두웠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남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못 느끼듯, 가까이 있는 서울대공원 주변에 있는 보물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퓨전과 함께 보물을 찾아 모험 같은 드라이브를 떠났다. 몸과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을 가득 채우고 돌아왔다.

Editor: 진우 Photographer: 이승호
Cooperation: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02-2188-6000), 서울대공원(02-500-7338)

몇 십 분 동안 옆에 탄 그녀는 말이 없었다. 농담을 던졌지만 싸늘한 표정이다. 여자가 정색하면 남자들은 머릿속이 하얘진다. 전원이 꺼진 모니터처럼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다. 서울대공원을 찍은 내비게이션은 서울에서 손꼽을 정도로 정체가 심한 사당역 방향으로 나와 그녀를 인도하고 있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도착 시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후회를 하기엔 이미 늦었다. 너무 멀리 왔다. 여기서 돌아가면 지금보다 힘든 상황-그녀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주면 기분이 바로 풀려진다-이 눈앞에 펼쳐질 게 뻔하다. 꺼진 모니터의 전원 코드를 꽂았다. 스마트폰으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정체 구간을 확인했다. 사당역이 마지막 고비였다. 여전히 차 안에는 냉기가 흘렀다. 그녀가 좋아하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을 작게 틀었다. 그녀의 기분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노래가 끝날 즈음 사당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앞차들이 점점 멀어졌다. 가속페달에 올려놓은 발끝에 힘을 주었다. 순한 양 같던 2.0L 에코부스트 엔진이 기다렸다는 듯 최고 출력 234마력, 최대 토크 37.3kg·m의 강력한 힘으로 도로를 박차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솔직히 놀랐다. 2000cc 엔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이였다.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녀도 웅장할 정도로 강력했다. 진짜 드라이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대공원 드라이브 코스는 약 8km다. 막힘없이 달리면 한 시간도 채 안 걸린다. 하지만 하루 놀다 오기 좋다. 그 이유는 따로 있다. 드라이브는 차와 운전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리는 동안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행위다. 단순히 코스의 길이만으로 즐거움의 크기를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퓨전을 선택한 데도 짧은 코스가 한몫했다. 오래 타봐야 성능이나 진가를 알 수 있는 차보다는 단 한 번의 가속으로도 탄성을 자아낼 만한 차가 이 코스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스가 길어지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슈퍼카를 타고 있어도 지겨울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대공원. 370여 종 3900여 마리의 세계 각국 동물이 사는 동물원과 놀이동산 등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종합 테마 공원이다. 가족, 연인의 데이트 코스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다. 어릴 적 사진을 모아둔 앨범을 뒤져보면 서울대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의 추억이 간직된 곳이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 건축,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자연 속 휴식 공간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이곳으로 가는 길이 이번 드라이브 코스에 숨은 진짜 보물이다. 서울대공원 메인 주차장을 빠져나와 우회전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이정표가 보인다. 속도를 조금 내면 숲 속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를 마주하게 된다. 출발 전에 다시 한 번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치 서킷을 주행하듯 다양한 각도의 코너와 직선 주로가 다이내믹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차에서 내릴 경우가 아니라면 차 안에서 안전띠 착용은 의무다). 그와 반대로 주변 풍광은 '힐링' 그 자체다. 마치 '짬짜면' 같이 전혀 서로 다른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놓은 것 같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싱싱한 신록은 스마트 기기와 컴퓨터에 지친 눈을 위로해주고, 신선한 공기가 발끝까지 퍼진다. 퓨전은 '달리기'에 포커스를 둔 스포츠카가 아니다. 하지만 직선과 코너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이유는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덕분이다. 순간 감속과 가속에 즉각 반응한다. 오로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퓨전은 충실하게 '차' 역할을 한다. 화창한 봄날, 데이트할 만한 수많은 드라이브 코스를 제쳐두고 서울대공원으로 향한 것은 순전히 자동차 전문지에서 일하는 선배 때문이었다. 선배는 "사당역 부근이 조금 막힐 수도 있는데, 거기만 빠져나가면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하루 놀다 오기에도 좋은 숨은 코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기회가 되면 평일에 휴가에 연차를 내고 꼭 한 번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퓨전과 함께.



2

1 서울대공원 입구 화단에는 봄을 맞이한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있다. 2 호수 가에서 바라본 서울랜드의 전경. 3 리프트를 타면 서울대공원과 과천 곳곳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앞에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는 퓨전. 5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기분을 화사하게 만들어 주는 노란색 튤립. 6 한가로운 동물원의 오후를 보내고 있는 하마. 7 휴양림에 와 있는 것 같은 싱싱한 신록의 서울랜드 옆 드라이브 코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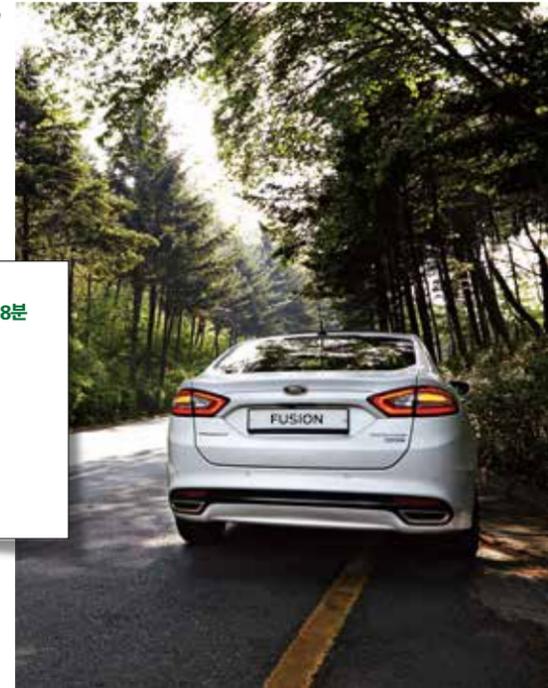
4



5



6



7

Course Information
사당역~대공원역 | 거리 5.25km | 소요 시간 8분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 사당역(4호선)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대로 50 대공원역
과천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 거리 4km | 소요 시간 17분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딜러십의 진정한 저력 헤인자동차 유종한 대표

지난해 포드코리아의 딜러사로 합류한 헤인자동차는 그동안 수입차 딜러사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걸으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유종한 대표는 헤인자동차가 국내 포드자동차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이승호



길 지 않은 시간이지만 타고난 듯한 풍채와 힘을 실어 전하는 말투는 신뢰와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 중간중간 건네는 가벼운 농담과 환한 표정은 CEO가 가질 법한 권위적 이미지를 지워냈다. 실제로 그는 오랜 시간 수입차 업계에서 현장을 두루 경험한 스페셜리티지만, 아직도 일선의 영업사원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며 답을 찾으려 한다. 리스크보다는 가능성과 기회부터 점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다. 강남과 서초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수입차 영업시장을 강북과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옮기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헤인자동차의 중심에 유종한 대표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 유난히 밝은 햇살이 부서지던 날, 유종한 대표를 만나 헤인자동차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헤인자동차와 포드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A 2012년 8월 포드에서 세 번째 메가 딜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다. 포드라는 브랜드의 가능성을 믿고 딜러십 사업에 뛰어들었다. 헤인자동차는 모기업인 (주)헤인의 자회사로서 2013년 1월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처음 출범했다. 이후 5월에 구리 전시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세일즈와 서비스를 시작했다.

Q 많은 수입차 브랜드 중 포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A 1995년 BMW 코리아의 창립 멤버로 시작해 10여 년간 있으면서 영업총괄 세일즈 디렉터를 지냈다. 국내외 수입차 시장을 남다르게 주시해왔고, 보는 시각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동안 독일 차들이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등 많은 성장을 이뤘는데, 이에 비해 국내 소비자에게 포드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는 100년이 넘는 전통과 기술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만족이 매우 높은 브랜드다. 또한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던 회사가 포드였다. 가능성은 충분했고, 헤인자동차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자신도 있었다.

Q 실제로 지난해부터 국내 포드자동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큰 성장을 이뤘다. 헤인자동차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나.

A 딜러사로 선정될 때부터 세일즈 타겟을 서울 강북, 경기도 북부로 삼았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강남과 서초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포드 역시 네트워크 기반이 거의 없었다. 헤인자동차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라 보고, 구리 전시장을 시작으로 의정부 전시장, 미아 전시장, 노원 전시장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서비스센터는 의정부서비스센터와 강북구에 위치한 북부서비스센터 두 곳이다. 헤인자동차는 편중되어 있던 세일즈 영역을 확장시킨 역할이 크다고 본다. 이런 전략이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강북 지역뿐 아니라 용인 수지 지역도 커버할 계획이다.

Q 분명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 같다.

A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맞았다.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북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수입차 업계 중 포드가 최초다. 우리를 중심으로 경쟁 브랜드들이 강남, 서초를 벗어나 이곳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헤인자동차를 중심으로 영업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Q 기존 수입차 시장과 영업 전략도 달라졌는가.

A 강남이나 서초지역은 워킹 커스터머, 즉 스스로 찾아오는 고객이 많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은 우리가 먼저 고객을 찾아야 한다. 헤인자동차는 이곳 지역에 투자를 한 만큼 이 지역 고객을 발굴하고, 높은 만족을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모든 영업사원을 지역 전문가가 되게 하고, 고객과 교감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쇼룸이나 서비스센터가 있는 이유도, 가까운 곳에 있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러한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구리 전시장의 경우 구리테니스협회나 축구협회 등 지역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계한 마케팅 이벤트 등을 펼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Q 헤인자동차의 또 다른 저력을 알려달라.

A 우리는 사람이 곧 저력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이다. 인재관도 그렇다. 지난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의정부서비스센터가 1위를 차지한 것도 그 덕분이다. 의정부서비스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마스터 테크니션 두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 서비스 마인드가 프로급이다. 내가 가장 뿌듯한 순간도 고객들이 영업사원이나 테크니션에게 서비스에 대한 칭찬을 할 때다.

Q 좌우명이 뭐냐.

A '실패가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Q 헤인자동차의 2014년 목표는.

A 빠르면 5월 말 마포 전시장이 오픈한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을 커버할 것이다. 이곳은 특히 강북지역 중에서도 수입차 전시장이 없는 곳이다. 잠재된 고객이 많을 것이라 보고, 기대도 크다. 마포 전시장이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 올해 안에 용산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문을 연다. 3S(Sales, Service, Spare parts)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판매량에서도 포드자동차의 국내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등 100% 이상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역시 헤인자동차가 포드코리아의 입지를 또 한 번 새롭게 다지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포드 포커스와 함께한 배우 지일주

The Boy's Beautiful Moments

올해 서른인 그는 확실히 나이에 비해 앳돼 보인다.
살짝 그을린 피부나 해맑게 웃는 얼굴,
신나게 떠드는 듯한 말투까지. 배우인 그에게 이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면모는 어떤 캐릭터도 흡수하게 하는 도화지 같은 것이었을까.
많은 캐릭터를 소화하며 자신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배우 지일주를 만났다.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이유미
Cooperation Brooks Brothers(1899-1818), Hugo Boss(02-515-4088),
Maestro(1544-5114)



갓 고 싶은 게 있었다. 비싸서 엄두도 못 낼 것이었는데, 그래서 더 갖고 싶었다. 오랫동안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차마 살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지르기로 했다. 반값은 카드로
결제하고, 반값은 모아둔 적금 일부를 털었다. 뒷일은, 에라 모르겠다. 쇼핑이건 사랑이건
마찬가지다. 아무리 생각해도 간절한 일, 앞뒤 생각 안 하고 감행한 일일수록 오래 잊히지 않는
법이다. 천진함으로 규정했던 배우 지일주의 첫인상과 마주한 뒤, 작품과 연기에 관한 뻘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아이돌 같은 외모의 그에게서 의외의 에피소드가 쏟아져 나왔다. 제대 후 무작정 광고 에이전시나
영화사를 찾아다녔는데 장진 감독을 만나기 위해 영화사 앞에서 일주일 동안 죽치고 있었다는 식의
무모한 열정에 관한 이야기. 그에게 연기란 그런 것이었다. 대책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것.

사실 그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공 차고, 만화책도 빌려보고, 학원에도 가고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 특히 수학을 좋아했는데,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 전국 10%에
들 정도로 잘했다.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고등학교 때는 이과에 진학했다.
그러다 '단순히 재미있어 보여' 연극반에 들어갔는데, 웬걸 그야말로 대책
없이 빠져버렸다. 학기 중에는 연극반에서 연극을 하고, 방학 때는 YWCA의
서울연합연극동아리 '썬'에서 연극을 했다. 내내 연극만 한 셈이다. 두 곳의
회장직을 동시에 역임할 정도였다. 뭐가 그렇게 그를 연극에 빠져들게 한
걸까. "뭘 대단하게 연기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하기보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마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느낌. 노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스킨십, 정 같은 것에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함께 연극한 친구들을 보면 누구랄 것
없이 다들 외롭고 결핍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게다가 무대 위에 서면 사람들이 다 나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견줄 수 없이 연기에 빠지게 한 것 같아요."

결국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고3 때는 문과로 전과한 후 서울예대 연극과에
수시 입학했다. 스물한 살에 입대했고, 스물세 살에 제대했다. 연극만이 예술이고
연극만 하기로 했던, 이전의 약간은 치기 어린 생각이 제대 후 바뀌었다. 영화나
방송 쪽으로도 눈을 돌렸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현장 보조 출연부터 시작했다. 일당 5만~6만 원씩 받으며 3~4개월 동안 일했다.
고생도 많았다. 그러다 이미지 단역을 맡게 됐고, 그때 감독의 눈에 들어 영화 <님은
먼곳에>에도 출연했다. 이후에도 마땅한 소속사가 없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촬영장을
다녔고, 포토샵으로 직접 만든 프로필을 들고 영화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추운 겨울날, 영화사
'필름잇수다'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장진 감독을 기다린 적도 있다. 보다 못한 직원이 장진 감독이
공연 준비 중이며, 공연 연습장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라는 귀뜸과 함께 따뜻한 커피와 과자를
주었다. 그때 커피가 담긴 종이컵에 영화사 로고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종이컵을 지금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결국 장진 감독을 만났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머뭇거리기만 하다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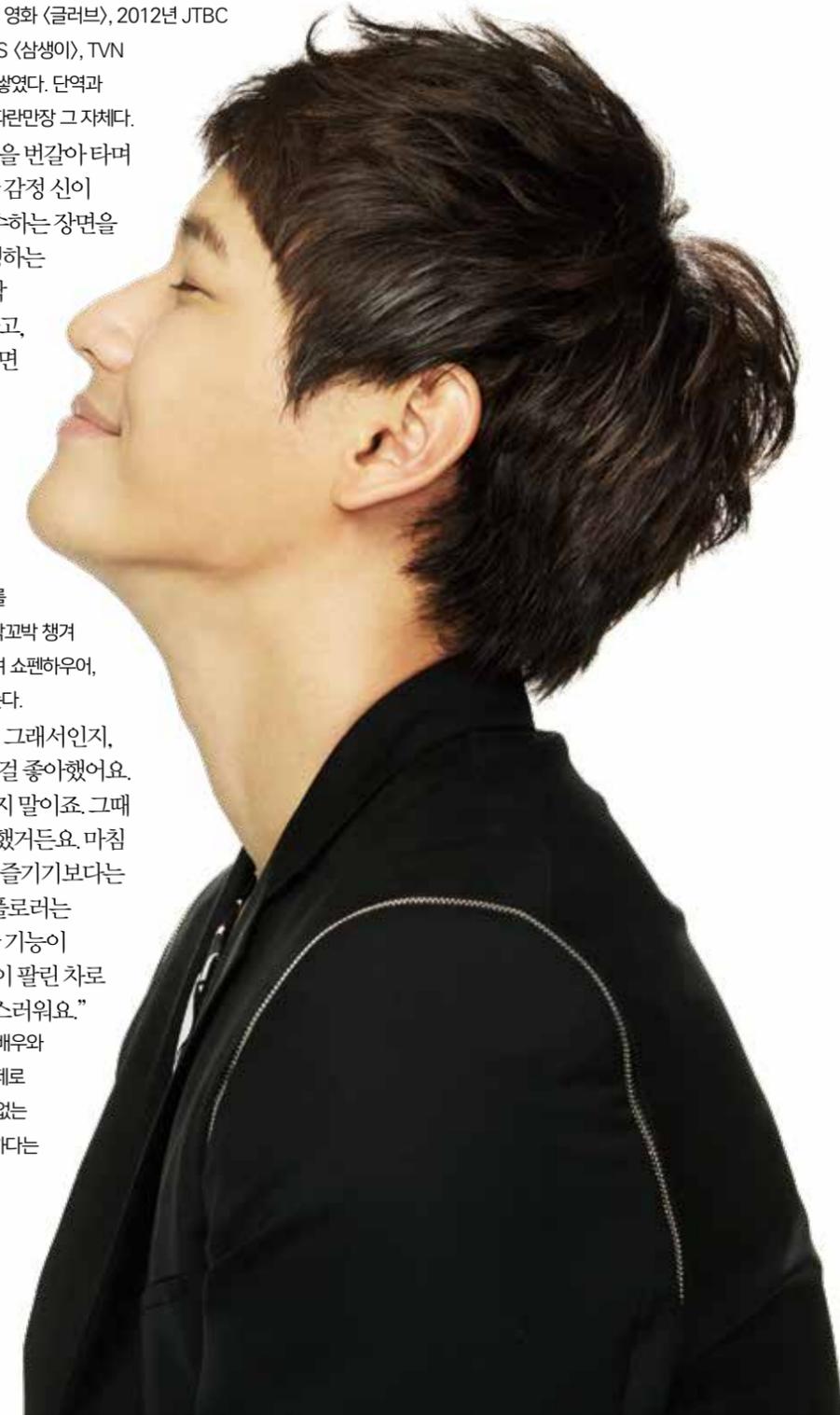
“소설이나 철학책이 저를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인지, 추억이 있는
장소로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그때의
열정을 다시 돌아본다든지 말이죠.”

‘내가 준비한 게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절치부심한 끝에 2008년 KBS2 《태양의 여자》부터 2009년 OCN 《정약용》, 2010년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2011년 영화 《글러브》, 2012년 JTBC 《몬스터》, MBC 《골든타임》, 2013년 영화 《영두야, 연애하자》, KBS 《삼생이》, TVN 《빠스켓볼》, 뮤지컬 《총각네 아재가게》까지 필모그래피가 차곡차곡 쌓였다. 단역과 조연부터 시작해 주연도 맡았다. 곱상하게 생긴 청년의 연기 인생이 파란만장 그 자체다. “드라마 《정약용》을 찍을 때만 해도 혼자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남양주종합촬영장까지 다녔어요. 2회차 저녁에 중요한 감정 신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죽였다는 오해로 정약용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찍어야 했는데 12월이라 춥기도 하고, 낮에만 해도 고생하는 제가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 감정 신을 딱 찍었는데, 감독님이 저를 달리 보시더라고요. 연기 좋다고, 챙겨주시고, 왜 아이돌 가수들이 음악 방송 할 때 1위 하면 울고 그러는 게 전 이해가 돼요. 연습생 몇 년씩 하면서 고생했을 텐데 누군가 ‘고생 많았어, 잘했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일까. 그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현재 MBC 《호텔킹》에 출연하고 있는 것도, 작품을 함께하는 스태프와 배우들도 너무 소중하고 좋다고. 일주일에 3~4일은 《호텔킹》 촬영지인 평창에 머무는데, 요즘은 선배들과 횡성 맛집 투어에 한창이다. 술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전시나 영화, 책도 꼬박꼬박 챙겨 본다. 이걸 맛고, 이걸 틀리다고 확정짓는 자기계발서를 가장 싫어하며 쇼펜하우어, 데카르트, 니체나 밀란 쿤데라, 알랭 드 보통, 박민규의 책을 즐겨 읽는다.

“소설이나 철학책이 저를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인지, 추억이 있는 장소로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그때의 열정을 다시 돌아본다든지 말이죠. 그때 어렵게 돈을 모아 차를 샀는데 소속사가 생기면서 처분했거든요. 마침 이번에 다시 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속도를 즐기기도 실용성이나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실내 조명등도 예쁘고, 지형 관리 시스템 같은 디테일한 기능이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만난 포커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알고 있는데, 연비는 물론 드라이빙 퍼포먼스까지 만족스러워요.”

연기에 대한 겁 없는 열정이나 철학서와 소설책이 주는 진지한 고민, 배우와 감독을 병행하는 벤 애플릭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롤모델이며 실제로 연출가가 되기 위해 습작을 하고 있다는 것, 주변 사람들을 향한 숨김없는 애정 등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삶이 누구보다 아름다운 순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좋은 배우이며, 점점 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이제 우리가 지일주라는 이름을 주목할 차례다.



누가 그랬던가? SUV는 슈트 속에 감춰진 다부진 명품 근육처럼 매력 덩어리라고. 남자라면 SUV 중 단연 남성스러움의 최고라 불리는 익스플로러와 함께 일상을 떠나 한 번쯤 홀로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익스플로러와 함께 숲으로 떠난 한 남자의 캠핑 기행.

Editor: 임선미 Photographer: 이유미 Model: 김형찬 Hair&Makeup: 백진경

the Travel Alone and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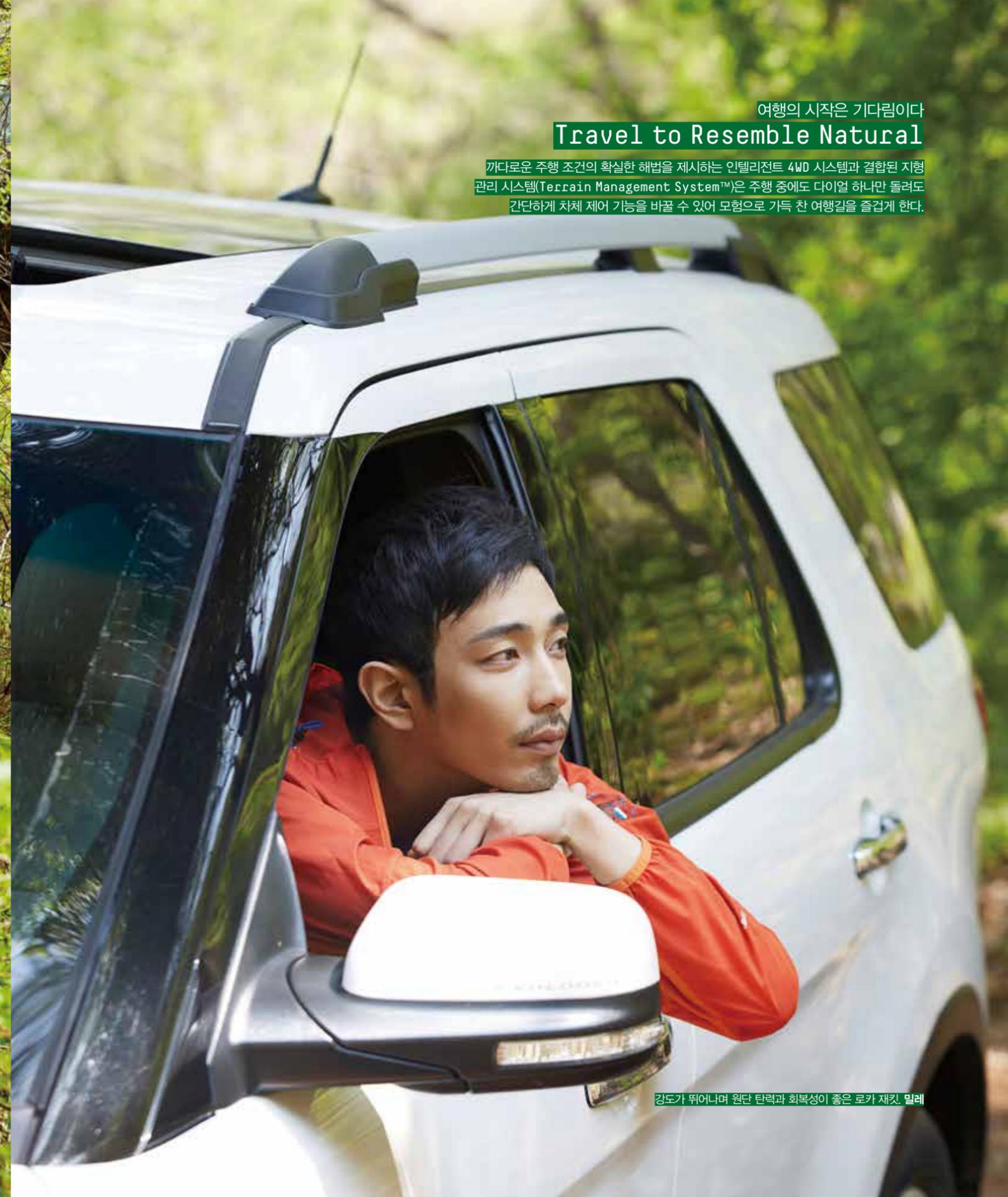


등산에 좋은 바람막이와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뉴고르너 LT 재킷. 밀레 시각 프레임에 클립을 끼운 듯한 빈티지 스타일 선글라스. 톰포드 by 세원 I.T.C

여행의 시작은 기다림이다

Travel to Resemble Natural

까다로운 주행 조건의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는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과 결합된 지형 관리 시스템(Terrain Management System™)은 주행 중에도 다이얼 하나만 돌려도 간단하게 차체 제어 기능을 바꿀 수 있어 모험으로 가득 찬 여행길을 즐겁게 한다.



강도가 뛰어나며 원단 탄력과 회복성이 좋은 로카 재킷. 밀레

삶을 유행하는 여유로움

Enjoy Comfort

3열 자동 폴딩 시트의 7인승 SUV인 익스플로러는 2.285L의 뒷자석 적재 공간을 겸비하고 있다. 또 적재 공간의 시트를 접으면 완벽하게 평평한 구조로 변신해 캠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풍 재킷, **코오롱스포츠** 신축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데부루 우븐 스트레치 팬츠, 밀레 인체적 패턴과 착화감이 우수한 아웃도어 워킹 슈즈, **코오롱스포츠** 그레이 캐리어와 오렌지 백팩, 투미 옐로 트레일 워킹화, 밀레 블루 빈티지 스니커즈, 나파피리 블랙 트레킹 배낭, **코오롱스포츠**



휴식마저 특별한 여행

Take a Rest

익스플로러는 3.5L Ti-VCT 엔진과 2.0L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있다. 2.0 에코부스트 엔진은 3.5L와 견줄만한 강력한 힘 뿐 아니라 연료 효율을 극대화해 여행 중 주유소에 들릴 일이 적다. 뿐만 아니라 최대 2288kg의 강력한 견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SUV중 SUV다. 이는 베스트셀링 7인승 수입 SUV로 수년째 선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옐로 재킷, **코오롱스포츠** 아웃도어 기능성에 트렌디한 스타일까지 겸비한 오웬 하프 팬츠,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가볍고 외부 충격에 강하며 내식성과 내열성이 탁월한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물병과 컵, **노스페이스** 토트백과 백팩 모두 연출 가능한 밀리터리 스타일의 알파 브라보 러준 백팩, 투미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하기 쉬운 모바일 홀 4인용 텐트, X 헬리덱스 엘리트 체어, 트래블링 페어 스톨, 몬로 투톤 배색형 레드 스니커즈, **코오롱스포츠**

진정한 쉼을 느끼다
Healing in Nature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제동 보조 기능을 갖춘 충돌 경고 시스템은 전방 충돌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윈드 실드에 경고등을 점멸하며 경고음으로 충돌 위험을 알려준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움을 준다. 또한 세계 최초로 뒷자석 안전벨트에 에어백을 장착해 연약한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생각한 SUV다.

신선한 컬러와 세련된 스타일의 베스트 일레븐티
단정하면서 활동적 멋을 더하는 체크 셔츠, 빈폴 맨
활동하기 편안한 캐주얼한 카고 7부 하프 팬츠, 코오롱스포츠
블루 빈티지 스니커즈, 나파피리

삶의 휴식이 되다
**Elegant Place
to Stay this Trip**

내가 원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강한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익스플로러의 진짜 매력은 간편한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여행의 동반자다.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가져가도 익스플로러를 통해 150W까지 넉넉하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설영 시간 20초를 실현한 등산용 텐트 팔3, 스노우피크
조경량 모노 윈단으로 제작한 윈드프루프 패어 재킷 모노
캐주얼한 레드 하프 팬츠, 빈폴 맨
내구성이 한층 향상된 스피릿 리더와 캔버스 타입 버클리 미드 3, 노스페이스
재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로, 스노우피크
몸에 밀착되는 슬림한 디자인의 시티 백팩 무브-V, 코오롱스포츠
삼페인과 플루트 두 잔을 담고 있어 피크닉이나 캠핑에
실용적인 트래블러, 빅브 클리코
더치 오븐 요리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포트, 티탄 3P 세트,
티탄 싱글머그, 솔리드 스테이트 랜턴 호즈키,
기가파워전원토, 기가파워플레이버너, 스노우피크

Cooperation

- BEANPOLE MEN(02-6911-0835)
- ELEVENTY(02-6911-0835)
- KOLONSPORT(02-6911-0767)
- MILLET(02-3153-3206)
- MONRO(02-576-3469)
- NAPAPIJRI(02-3153-3260)
- NORTH FACE(영원무역)(02-940-1367)
- NORTH FACE WHITE LABEL(영원무역)(02-940-1367)
- SNOWPEAK(02-6203-1253)
- SEWON I.T.C.(02-3445-6428)
- TUMI(02-546-8864)
- VEUVE CLICQUOT(02-6911-0814)

Pore Minimizer

모공이 넓은 피부는 깔끔한 이미지를 한 번에 망칠 수 있다. 게다가 이맘때는 땀과 피지의 분비가 왕성해져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쫄쫄하게 모공을 조이는 케어 팁과 스킨케어 제품.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김명성, 이정환



1 아이리스 부근으로 만들어 세안 시 부드러운 스크럽 효과가 있는 클렌징 바. 사포네 피오르 디 아이리스. **SANTA MARIA NOVELLA** 2 이완되거나 민감해진 피부를 수렴하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화장솜에 적셔 가볍게 두드린다. 아쿠아 디 로즈. **SANTA MARIA NOVELLA** 3 비타민 C 파우더를 직접 섞어 사용하는 2주 집중 탄력 앰플. 고기능 펩타이드 성분이 처지고 모공이 늘어진 피부에 힘을 실어준다. 리페어텍스 P3 2-위크 큐어 앰플. **SO NATURAL** 4 국소 부위도 꼼꼼하게 클렌징할 수 있는 슬림한 디자인의 클렌저. 버튼을 누르면, 수렴과 페퍼민트 추출물을 함유한 미세 버블이 브러시에 생성되어 모공을 깨끗이 관리해준다. 포어 리파인 딥클렌저. **ESPOIR** 5 캐머마일, 아스트린젠트 성분 등이 피부 정화와 피지 분비 조절에 도움을 주고, 빠미의 마리에서 직접 수확한 유기농 아카시아 꿀이 피부를 촉촉하고 환하게 가꿔준다. 로시옹 토닉. **FAMILLE MARY**

PORE CLEANSING

클렌징에 신경 쓰지 않으면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모공 속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모공이 넓어지는 주원인이 된다. 제품을 충분히 녹여 꼼꼼히 마사지하되 너무 자극을 주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입자가 미세하고 쫄쫄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클렌징 제품이나 진동 브러시가 달린 클렌징 기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세안하기 전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두는 것도 팁. 이후 피지를 녹이는 딥 클렌징 제품이나 각질 제거에 좋은 스크럽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PORE TIGHTENING

모공을 열고 충분히 세안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모공을 잘 닫아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 미온수로만 세안을 끝내지 말고, 찬물로 15~20차례 헹구거나 차가운 타월로 얼굴 전체를 고루 마사지한다. 세안 후에는 피부 수렴 효과가 있는 토너와 모공 수축을 도와주는 기능성 에센스 제품을 사용한다. 이러한 스킨케어 제품은 피지를 조절하고 더 이상 모공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에 1~2회는 피지를 흡착하고 조이는 클레이 성분을 함유한 팩을 한다.

PORE ANTI-AGING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도 확장한다. 특히 이전에 여드름이나 피지로 고생해 이미 커진 모공이 더 늘어지기까지 하니 미리 안티에이징 케어에 신경 쓸 것. 피부 노화는 세포의 수분 함량으로 결정되는데,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지 분비가 심하다고 과도하게 제거하거나 유·수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공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나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안면 근육을 풀어주는 페이스 요가를 꾸준히 하면 효과는 배가된다. 입을 크게 벌려 '아, 에, 이, 오, 우'를 반복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다.

Cooperation

AESTURA THERACNE(080-023-3900), ESPOIR(080-619-8888), ETUDE HOUSE(080-022-2285), FAMILLE MARY (080-080-4512), FROSTINE(080-023-7007), LUNA(080-024-1354), ONL (080-604-1734), PAULA'S CHOICE(1661-6656), SANTA MARIA NOVELLA(02-546-1612), SO NATURAL(02-573-6769)



1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얼굴의 부기를 완화하고 페이스 라인을 긴장시키며, 거친 파뮷결을 정리해준다. 인스턴트 라이닝 에센스. **FROSTINE** 2 유향 온천수 가마르 드 워터를 배합해 항염 효과와 보습력이 강한 클렌징 젤. 노폐물과 산화된 피지를 씻어주고 피지 밸런스를 조절한다. 퓨어 페이스 젤. **GAMARDE by ONTREE** 3 인도말구슬나무꽃 오일을 함유해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클렌징 오일.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피부 속 노폐물을 닦아낸다. 릴리프 유즈 클렌징 오일. **LUNA** 4 막히거나 늘어진 모공,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등 복합적인 모공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브러시 헤드와 클렌저로 모공을 정화하고, 주 2회 클레이 마스크로 모공을 타이트하게 조여준다. 딥포어 솔루션 킷. **CLARISONIC** 5 여드름성 피부의 과다 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모공 주변 피부의 탄력을 부여한다. 포어 클레이 마스크. **AESTURA THERACNE** 6 흡착력이 우수한 화이트 클레이가 피부 속 노폐물과 숨은 피지를 닦아내고, 안디로바 씨드 오일이 모공을 조인다. 오프더페이스 모공 촘촘 토너. **ONL** 7 레티놀과 항산화 성분을 안정적으로 배합해 주름 개선 등 피부 기능을 강화한다. 리지스트 인텐시브 링클 리페어 레티놀 세럼. **PAULA'S CHOICE** 8 실기한 텍스처가 모공을 커버해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고, 동시에 세범 컨트롤 파우더가 메이크업 시에도 과도한 피지를 잡아주는 모공 프라이머 에센스. 굿바이 포어 에버. **ETUDE HOUSE**

Spring Sparkling Wine

봄날, 파리지앵처럼 노천카페에 앉아 탄산 가득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 느낌이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풍미를 더해줄 스파클링 와인으로의 초대.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이승호

Cooperation 길진인터내셔널(www.kiljin.co.kr), 모엠헤네시코리아(02-566-3797), 레벤드매일(www.lesvinsdemaeil.com, 02-7497-6888)

1 쉬르 다르크, 버블넘버원 핑크 라벨 (Sieur d'Arques, Bubble No.1 Pink Label)

프랑스 랑그독 지방에서 생산하는 '버블넘버원'은 일반 샴페인보다 무려 100년의 역사를 앞선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버블넘버원 핑크 라벨'은 연둣빛이 감도는 골드빛 컬러를 띠며, 입안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토스티한 여운이 뛰어난 조화를 이룬다. 섬세한 기포와 흰 꽃, 리무 지방의 토착 포도 품종인 '모작'이 블렌딩되어 복숭아, 배, 사과 등 과일 향이 풍부하게 느껴진다.

LESVINSDEMAEIL

2 조셉 드라텐 저스트 휴고 (Josef Drathen Just Hugo)

'저스트 휴고'는 독일 모젤 지방에서 생산하는 와인으로 청포도 품종인 '아이켄'으로 만든다. 민트 농축액, 베리류의 엘더베리 농축액, 라임 농축액 등이 첨가된 약발포성 민트 향 스파클링 와인이다. 6~8도 정도로 차갑게 해서 마시면 좋고, 기호에 따라 얼음, 라임 조각 등을 넣어 마시면 디저트 또는 식전주로 잘 어울린다. 오픈너가 필요 없는 스크루캡 와인으로 봄을 맞아 피크닉, 캠핑 등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LESVINSDEMAEIL

3 비솔, 제이오 콜메이 (Bisol, Jeio Colmei)

이탈리아 베네토 북동부에 위치한 비솔은 프로세코를 생산하는 와이너리 중 최고로 손꼽힌다. '제이오(Jeio)'는 비솔의 오너인 데시데리오(Desiderio)의 애칭을 뜻하며, 발도비아테네 지역 사투리로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콜메이(Colmei)는 평지가 아닌 경사가 심한 언덕에서 경작한 포도로 만든 비솔 프로세코의 특징을 잘 표현한 와인이다. 밝은 벚집색에 과일 향이 풍부하다. 생동감 넘치며 풍부한 과일의 맛과 향, 균형감이 뛰어나다.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파스타와 잘 어울리고, 특히 식전주로 사랑받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KILJIN INTERNATIONAL



1



2



3



4



5



6

4 토스티 모스카토 다스티 하트 (Tosti, Moscato d'Asti)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에서 생산하는 '토스티 모스카토 다스티 하트'. 모스카토 디 카펠라라는 포도 품종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품종이기도 하다. 해양 화석이 남아 있는 토양과 완벽한 기후는 이 포도에 독특한 아로마와 달콤함을 부여한다. 복숭아, 살구 등 모스카토 품종 특유의 섬세하면서 짙은 과일 향과 달콤함, 향긋함, 낮은 알코올 도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달콤한 봄 과일의 향기를 느끼기에 안성맞춤.

LESVINSDEMAEIL

5 고세 그랑 로제 브뤼 (Gosset, Grand Rose Brut)

1584년에 설립한 고세(Gosset)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이자 크루그(Krug), 볼랑저(Bollanger)와 함께 'K.G.B'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세계 3대 프레스티지 샴페인 중 하나다. 16세기 왕가의 식탁에 오르던 유일한 와인으로, 프랑수아 1세로부터 자신이 직접 설립, 관리하던 와이너리를 하사받을 정도로 사랑을 독차지했다. '고세 그랑 로제 브뤼'는 아름다운 루비빛이 살짝 감도는 핑크 컬러에 라즈베리나 딸기, 레드커런트 같은 붉은 과일 향과 시나몬과 육두구 같은 향신료의 향, 구운 빵 같은 고소한 향이 느껴진다. 실크같이 부드러운 와인의 질감과 탄산 방울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터지며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여운을 남긴다.

KILJIN INTERNATIONAL

6 돔 페리뇽 빈티지 (Dom Perignon Vintage)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하는 '돔 페리뇽'은 프리미엄 샴페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17세기 베네딕트 수도사인 피에르 페리뇽은 미사에 쓸 와인을 고르기 위해 수도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와인 저장고에 갔는데, 탄산이 팍 찬 병의 코르크가 터져 나왔다. 호기심에 한 모금 마신 결과, 썩은 맛이 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의 입안은 별처럼 아름다운 맛으로 가득했다. 돔 페리뇽은 그날의 사건을 떠올려 별을 심벌로 삼았다. 황금빛 컬러의 '돔 페리뇽'은 이스트, 건과류, 감귤류, 자몽 향이 느껴진다. 입안에서는 상쾌한 과일 향과 중후함이 조화를 이루며 오랜 여운을 전한다. 식전주로도 훌륭한 풍미와 애프터타이저, 가볍게 조리한 환상 생선, 채소, 수프 등과 잘 어울린다.

MOET & CHANDON

All Night Long



끝없이 마음을 두드리는 마법 같은 사운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밤새도록 짜릿한 드라이브에 몸을 맡기고 싶게 하는 일렉트로 댄스 · 하우스 뮤직 음반을 꼽았다.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이승호 Cooperation Sony music(02-530-0900), Universal Music(02-2106-2000)

1 Get Wet

DJ 자한과 야스민, 프로듀서 레인맨으로 구성된 시카고 출신 일렉트로 그룹 크루엘라의 첫 번째 정규 앨범. 'Come & Get It'의 펑크 일렉트로부터 'Enjoy The Ride'의 기념비적 트랜스, 그리고 'Human'의 어쿠스틱 기타까지 시종일관 예상을 뛰어넘는다. 드럼 앤 베이스, 더티 일렉트로, 프렌치 하우스, 프로그레시브, 덤스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크루엘라만의 색깔을 엿볼 수 있다. **Krewella, 1 CD 12곡. Sony Music.**

2 Dconstructed

<겨울왕국>의 'Let it Go', <라이온 킹>의 'Circle of Life' 등 디즈니 영화의 주요 테마를 거친 일렉트로 하우스, 덤스텝, 프로그레시브 등의 장르로 리믹스한 앨범. 이 시도만으로도 흥미로운데 다프트 펑크, 아민 반 뷰렌, 아버지, 케스케이드,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의 약스웰과 세바스찬 잉그로스 등 현재 일렉트로 음악을 이끌고 있는 쟁쟁한 슈퍼스타들이 참여해 귀를 더 즐겁게 한다. **Various, 1 CD 14곡. Universal Music.**

3 Atmosphere

샌프란시스코 하우스 신을 대표하는 아티스티이자 현재 가장 핫한 DJ 케스케이드의 신보. 이번 앨범에서 케스케이드는 하우스·EDM의 형식을 빌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했다는 평이다. 그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멜로디는 더욱 선명해졌고, 때문에 현 하우스 신에서 독창성을 제대로 발휘했다. 2014 그래미 최우수 댄스 레코딩 노미네이트에 빛나는 싱글 'Atmosphere'도 수록되어 있다. **Kaskade, 1CD 13곡. Sony Music.**

4 TRUE : Avicii by Avicii

10대에 불법 다운로드로 구한 에프엘 스튜디오로 작곡을 시작하고, 스물한 살에 <디제인> 매거진 톱 10에 오르는 등 전자음악의 천재였던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DJ 아버지다. EDM 신의 신화적 존재라 할 수 있는 그가 지난 4월 첫 번째 리믹스 앨범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드 히트 앨범이던 자신의 데뷔 앨범 <True>의 전곡을 직접 리믹스한 것. 2013년 가장 최단 시간 판매한 싱글인 알로에 블라크 피쳐링의 'Wake Me Up', 팝 싱어송라이터 오드라 메이가 참여한 'Addicted to You' 등을 새로운 리믹스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Avicii, 1CD 9곡, Universal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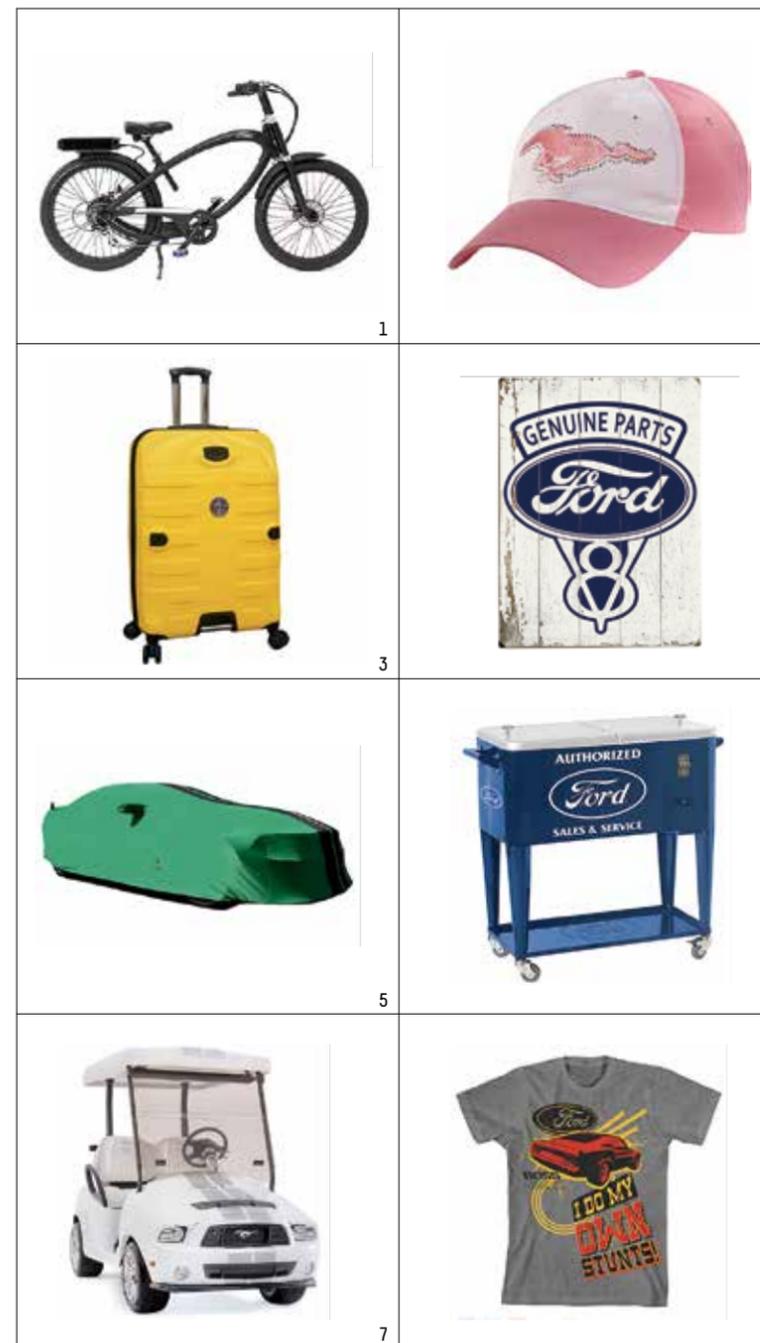
5 Clarity

레이디 가가의 투어 오프닝 DJ로 알려진 독일 EDM 프로듀서인 제드의 메이저 공식 데뷔 앨범이다.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싱글 'Shave It Up', 빌보드 댄스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매튜 코마 피쳐링의 'Spectrum', 현란한 일렉트로닉 하우스 싱글 'Stache' 등 싱글 컷과 일렉트로닉 팝 여성으로 성장한 엘리 굴딩 피쳐링의 'Fall Into The Sky', 원리퍼블릭의 멤버 라이언 테더가 메인 보컬을 맡은 'Lost At Sea' 등을 수록했다. **ZEDD, 1CD 10곡, Universal Music.**

One Fine Spring Day

포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감각적인 봄을 맞이하는 방법.

Editor 김미라 Cooperation <http://merchandise.ford.com>



1 Ford Electric Bicycle

팩 리튬이온 배터리와 충전기가 포함된 시마노 7단 기어 전기 자전거. 허브모터를 탑재했으며, 프레임은 경량화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했다. 3695달러.

2 Ford Ladies Pony Pink Rhinestone Cap

머스탱의 엠블럼이 여성을 위한 귀여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화이트와 핑크 컬러에 큐빅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100% 면 소재 캡. 15.99달러.

3 Mustang Yellow Expandable Polycarb Upright

내구성과 충격에 강하면서도 가볍다. 100%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그 비결이다. 360도 회전하는 바퀴는 물론 상단의 공간을 확장해 더욱 편리한 여행용 캐리어. 250달러.

4 Genuine Parts Ford Sign

차고는 물론 서재, 바 등의 벽면에 걸어놓을 수 있는 빈티지 소품. 봄맞이 인테리어에 고심하고 있는 포드 자동차의 오퍼러면 눈여겨볼 것. 90달러.

5 Mustang Custom Indoor Car Cover

스트레치 새틴 소재의 통기성 커버. 차량의 윤곽에 따라 부드럽게 밀착되어 스크래치나 먼지로부터 보호한다. 429달러.

6 Ford Rolling Cooler

피크닉이나 캠핑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탬널 만한 아이템. 손잡이와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바퀴 잠금장치 기능도 있어 안전하다. 299.99달러.

7 Ford Mustang Fifty Years Limited Edition Golf Car

머스탱과 골프를 사랑하는 이라면 한눈에 반할 만한 포드 머스탱 50주년 기념 한정판 골프 카트. 골프백 거치대는 물론 전조등, 후미등, 브레이크 라이트 등이 달려 있다. 1만8795달러.

8 Kid's Ford Do My Own Stunts Shirt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포드의 그래픽 티셔츠. 100% 면 소재를 사용해 활동량이 많은 아이가 입어도 편안하다. 14.99달러.

봄날의 샐러드에 빠지다

하얀 접시 위, 시선을 잡아끄는 오브제는 마치 봄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새하얀 화이트 크림치즈와 빨간 방울토마토, 청포도, 노란색 체다치즈, 자색 고구마 파슬리, 프린지드 라벤더가 한 접시에 담겼다. 새콤달콤 짭조름한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류니끄의 봄 시즌 신메뉴다. 샐러드 접시와 함께 화분째 세팅돼 나오는 허브의 여왕으로 불리는 프린지드 라벤더를, 샐러드를 맛보기 전 직접 핀셋으로 라벤더 잎을 떼어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알싸한 맛과 달콤한 샐러드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It Tasty, Contemporary Cuisine

접시를 정성스럽게 수놓은 컨템퍼러리 퀴진 레스토랑 류니끄의 류태환 셰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에서 느껴지는 오감. 동서양의 감성을 넘나드는 컨템퍼러리 요리의 진수를 맛보라.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이승호
Cooperation 류니끄(02-520-8727, www.ryunique.co.kr)



흑미 아이스크림 디저트

베이스는 캐러멜 소스, 연유로 만든 소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크랜베리 크림 치즈볼, 시럽에 절인 알로에 위에는 흑미에 박하를 살짝 가미해 만든 흑미 아이스크림을 얹었다. 그 위에는 빛깔 고운 초록색 피스타치오를 뿌려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풍부한 마스카포네 치즈와 돼지감자로 만든 시리얼, 오징어 먹물로 만든 사블레 쿠키가 접시에 둘러 있다. 이 디저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무리는 연기가 나는 액체질소에 배그리니따를 넣어 디저트 위에 얹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식사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상큼한 디저트다.



최고 등급 한우 와규 부챗살 스테이크

류니끄의 메인 코스 요리인 최고 등급의 한우 와규 부챗살 스테이크. 순대처럼 생긴 것은 우삼겹으로 안에 흑미, 채소 다진 것을 채워 넣었다. 스위트 사워 소스, 레드 와인 비니거 소스를 곁들이면 육즙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환상적 맛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달달하게 조린 살렛, 영근 피클, 두릅, 볶은 땅콩을 곁들였다.

류태환

부산에서 태어나 해양 학자이자 요리를 사랑한 아버지의 권유로 기나긴 요리 수행을 시작한 '류니끄(Ryunique)'의 류태환 오너 셰프. 류태환 셰프의 성 '류'와 '유니크'를 합성해 지은 '류니크'라는 이름처럼 류 셰프만의 독창적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일본에 있는 핫토리 요리학교에서 수학하고, 영국의 르쿠르동 블리를 수료했다. 일본에서 5년, 호주에서 1년, 영국에서 3년을 보냈다. 세 대륙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모든 요리 철학이 그의 요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8년의 도쿄, 시드니, 런던에서 요리 학교 및 다수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월드클래스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2010년 귀국해 자신의 첫 번째 플래그십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잡지, TV, 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전주에 있는 CCIK 국제 조리학교 명예교수로 강의를 나가고, 웹툰 <미슐랭 스타> 감수, 노르웨이 수산물 홍보대사 겸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요리에 자신만의 철학, 진실한 이야기, 완벽한 기술의 세 가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요리 플레이팅, 요리를 풀어가는 접근법 등 그가 만드는 독특한 요리 과정을 보고 있으면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랄까. 맛 또한 새롭고 신선하다.

Q 처음 요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A 해양 학자인 아버지의 꿈이 요리사였어요. 저는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요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죠. 아버지와는 약속, 그에 대한 헌정을 생각하며 요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생각하던 요리가 조금씩 즐거워지고 있다고 할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요즘 '류니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요리하는 마음 자세는 어떤가요?

A 지난 1, 2월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최고 정점을 찍은 12월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레스토랑의 비수기라 그런지 스케줄이 하나도 없었죠. 제 자신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어머니가 '그만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곰곰이 생각했죠. 여기서 정말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 그래도 제 자신과의 약속,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3월에 메뉴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저희 메뉴는 계절별로 바뀌고 '네이처', '로맨틱', '헌정의 요리' 등 테마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번 시즌의 테마는 '라스트 찬스'라고 이름 붙였죠. 스테프를 모아놓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힘을 모았어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메뉴를 만들어보자고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마음먹어서인지 3월 초부터 스케줄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전에는 요리에 힘을 빼고 심플하게 표현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제 테크닉을 20~30% 끌어올렸어요. 손도 많이

가고, 좀 과학적이고 컨템퍼러리한 느낌을 살려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요리도, 인생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한다면 절대 결과가 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 개인 생활이 없으니 힘은 드네요. 하지만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태어난 것 같고,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Q 요리의 아이디어나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A 사람은 주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 요리는 일본, 호주, 영국 또 해안 국가에서 지내면서 받은 영감,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받은 영감, 어머니를 따라간 재래시장의 기억 등이 많이 녹아 있어요. 저는 기억에 많이 기대는 편이거든요. 제 요리는 저만의 철학, 진실된 이야기, 완벽한 테크닉의 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리사로서 10년 이상 노력하면 완벽한 테크닉은 따라오기 마련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이야기 등을 요리에 함축해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리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만 지배적이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죠.

Q 셰프라는 직업에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A 제게 요리라는 것은 고통과 치유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서, 미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통 셰프라면 어릴 때부터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아니거든요. (웃음) 하지만 손님들이 좋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Q 앞으로 요리사로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루고 싶은 소망은?**

A 서울에서 요리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난 후에는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점은 레스토랑을 '넘버원'으로 만들기보다 '오리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류니끄의 스테프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힘껏 후원하는 것이 제 궁극의 목표 중 하나고요. 함께 고생한 스테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요리하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꿈꾸고 노력하면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부산에서 바다를 마주하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작가, 엔지니어 등의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류태환 셰프는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 8월경 아마존으로 떠날 예정이다. 자연을 더 가까이하고, 여러 면에서 자신을 환기하고 돌아올 계획이다.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 '와일드 가이'가 되어 돌아올 그가 어떤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다양한 미감이 펼쳐지는 탄산 두유 수프

투명한 볼 안에 플라워 가든이 펼쳐진다. 다시마 국물과 해초로 만든 국수. 노란색은 메추리알을 63도에서 3시간 익혀 에말선처럼 만들어 부드럽다. 훈제한 바닷장어, 배로 만든 피클, 다시마 피클, 마늘즙, 훈제 장어뼈, 화려한 식용 플라워와 허브를 볼 바닥에 깔았다. 여기에 콩국수에서 영감을 받은 탄산 두유 수프를 뿌리면 훈제 향, 노른자의 리치향, 다양한 피클 향의 크런치함이 어우러져 오묘한 맛을 낸다.



서울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건 아니지만 시끌벅적한 서울과 다른 매력을 갖춘 숨은 명소가 가득한 도시 원주. 포드 원주 전시장이 있는 원주의 시크릿 플레이스를 찾았다.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류창렬(원주한지테마파크)

특명, 원주의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라



1 감성 지수를 업그레이드하라 뮤지엄 산

에코 리조트를 표방하는 오크밸리리조트 안에 개관한 '뮤지엄 산(Museum SAN)'은 원주의 깊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품에서 문화와 예술의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전원형 뮤지엄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지은 이 뮤지엄은 풍성한 자연 속에 오솔길을 따라 마주하는 웰컴센터, 페이퍼갤러리와 청조갤러리가 있는 본관, 그리고 세 개의 가든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승달을 닮은 웰컴센터를 지나면 패랭이꽃이 만발한 플라워가든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미국의 조각가 마크 디 수베로의 작품 'For Gerald Manley Hopkins'이 서 있다. 이어지는 180그루의 하얀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면 반짝이는 수면이 눈부신 워터가든에 알렉산드르 리베르만의 'Archway'가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한반도의 각 도를 상징하는 아홉 개의 스톤마운드가 있는 스톤가든도 감상할 수 있다. 스톤가든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임스 터렐관이 나오는데, 제임스 터렐 스튜디오에서도 인정한 작품 지평선의 방, 하늘공간, 완전한 영역, 웨지워크 네 개가 전시돼 있다. 빛과 공간의 예술가이자 라이트 아트의 선구자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을 닮은 뮤지엄 산에 가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문의 033-730-9000



2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 원주한지테마파크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한지. 오랫동안 한지 기술을 이어오던 원주에서 개관한 원주한지테마파크는 제법 멋스럽고 규모 있는 공간이다. 한지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 관람객이 직접 한지와 한지 공예를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 그리고 한지로 인테리어를 한 찻집 등으로 나뉜다.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1000년을 건다는 한지의 매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전시관에는 한지로 만든 다양한 생활용품과 한지 의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지 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한지의 특징과 활용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전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 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특히 전시 작품은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지의 우수성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위치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 문의 033-734-4739



3

멋진 항해를 꿈꾸는 당신에게 올리버 선박학교

올리버 선박학교는 말 그대로 배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지만, 여러 종류의 배를 구경하고 배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남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꾸는 살아 있는 현장이다. 선박학교 곳곳에는 작업 중인 배가 자리해 있는데, 다양한 설계도와 그에 맞춰 모습을 갖추어가는 배가 신기하면서 이색적이다. '배를 타고 즐기는 것만큼 배 만드는 과정 역시 보팅'이라는 이곳 대표의 말처럼 완성되어가는 배를 보면 당장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배 만드는 체험 외에도 이곳에서 생산하는 레저용 목조 선박을 관람할 수 있다.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82-1 문의 010-6332-6353



4

꽃미남 레스토랑을 가다 올크

지난해 오픈한 올크는 장재표 오너 셰프를 비롯해 꽃미남 서버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음식 맛뿐 아니라 시각까지 호강하는 곳으로 벌써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다. 내부에 들어서면 탁 트인 1층과 2층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원목을 바탕으로 한 컬러풀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가구를 배치해 전체적으로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 다락방을 연상시키는 아늑한 느낌의 2층 공간이 나오는데,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퓨전 양식을 표방하는 레스토랑 올크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메뉴는 샐러드, 파스타, 햄버거, 포테이토, 라이스 종류로 나누는데 치즈프라이 포테이토, 스노우 크림 치즈 파스타, 빼네 크림 파스타, 그릴 텐더 갈릭 치킨버거, 김치 베이컨 라이스, 목살 라이스, 스파이스 토마토 마카리타 파스타 등이 인기 있다. 식사 후에는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 각종 주류를 즐길 수 있다. 원주 무실동의 핫 플레이스 올크는 맛은 물론 친절함 서비스로 오감을 충족시키는 곳이다.

위치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26-6 105호 문의 033-742-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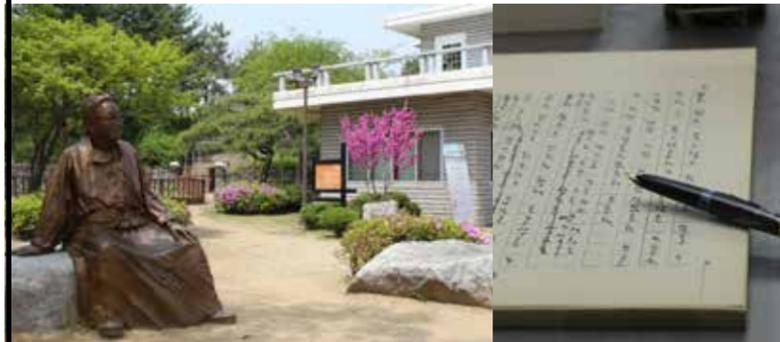


5

예술혼이 살아 있는 공간 박경리 문학공원

원주는 박경리 선생이 오랫동안 기거하며 작품을 쓴 문학의 근거지로, 그녀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글을 쓰고 삶을 일구던 곳이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그녀의 예술혼을 오롯이 느낄 수 있으며, 박경리의 사진과 작품, 생을 엿볼 수 있는 연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았다. 곳곳에는 친필로 쓴 문구를 만날 수 있다. 전시장을 나오면 박경리가 생활했던 옛집과 소설 《토지》 속 장면을 축소한 홍이 동산, 평사리 마당, 용두 레벌 등으로 꾸며놓았다. 소담스럽게 조성한 공간이지만 마치 《토지》의 주인공이 되어 소설 속을 걷는 느낌이다. 소박한 곳에서 찾는 일상의 여유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작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는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소설의 한 구절을 통해 그녀를 만나고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위치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 9-11 문의 033-762-6843



Fly Fishing

플라이 피싱 하면 떠오르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배우 브래드 피트가 낚시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유려한 곡선을 타는 플라이 피싱의 매력에 푹 빠지는 장면으로 한 번쯤 배워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주저하지 말고 플라이 피싱의 매력에 빠져보자.

Editor 진구 Cooperation 앵글러플라이(www.anglerfly.co.kr).

스파이더플라이(www.spiderfly.co.kr)



플라이 피싱의 기원은 BC 2세기의 마케도니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부들이 송어를 잡기 위해 깃털을 곤충 모양으로 만들어 낚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것. 플라이 피싱이 본격적으로 성행한 곳은 영국으로, 관련 책만 5000권 넘게 발행됐을 정도다. 플라이 피싱은 무게가 나가는 '플라이 라인(Fly Line)'을 이용해 가벼운 '플라이(Fly)'를 강가나 계곡으로 날려 보내는 동작이 큰 특징이다. 여기서 플라이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곤충 등을 모방한 가짜 미끼를 말한다. 인조 미끼의 재료는 예전에는 새의 깃털이나 동물의 털 등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실, 금속 실, 양모, 인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가 동원된다. 원하는 거리까지 미끼를 던지려면 더욱 큰 운동 동작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플라이 라인을 던졌을 때 그려지는 포물선의 아름다움은 플라이 피싱의 상징이자 백미다.

캐스팅의 묘미

플라이 피싱에서 중요한 것은 플라이 라인을 목적하는 곳까지 드리우는 요령인 캐스팅(Casting)이다. 플라이 피싱의 가장 짜릿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허공에 플라이 라인이 펼쳐지는 모습은 '낚시의 예술'이라 칭할 만큼 아름답다. 일반적인 낚시의 캐스팅은 추나 찌, 루어, 낚싯대의 탄력 등을 이용해 한 번에 던진다. 플라이 피싱의 캐스팅은 플라이 라인의 탄력과 무게를 이용한 여러 번의 백 캐스팅과 포워드 캐스팅을 반복해 던진다. 처음 캐스팅을 배울 때 비거리에 집착하다 보면 무리한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자세는 습관으로 굳어져 나중에 교정하기 어렵다. 정확한 자세와 리듬을 처음부터 몸에 익히면 비거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 무엇보다 플라이 라인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관건으로, 캐스팅 기술을 늘리고 플라이 피싱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각종 인조 미끼를 스스로 만드는 타이밍(Tying)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 교감을 이룬다

플라이 피싱은 강이든 바다든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는 낚시지만 송어와 연어를 대표 어종으로 꼽는다. 연어과 어종은 주식이 곤충이기에 곤충 모조 미끼를 사용하는 플라이 피싱이 잡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송어를 비롯해 산천어, 강준치, 열목어, 잉어, 붕어, 누치, 피라미 등이 잘 잡힌다. 하지만 플라이 피싱은 '캐치 앤드 릴리즈(Catch & Release)'의 잡고 놓아주고를 원칙으로 자연을 더 잘 이해하려는 레프초이므로 많이 잡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플라이 피싱의 매력은 자연 생태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데 있다. 그 지역의 자연 생태와 물고기의 생태, 수생 곤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것. 어종과 계절, 지역에 따라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다르고, 때에 맞는 미끼를 써야 하는 것은 플라이 피셔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플라이 피싱을 하기 적합한 장소는 어디일까. 피셔들은 이곳을 포인트라고 부른다. 물이 얼지만 않으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것이 플라이 피싱이다. 많이 잡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대상어에 따라 출조지를 정해야 낚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또 어떤 곳에서든 물고기의 입질이 가장 활발한 일몰 전 3시간, 일출 후 3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흐르는 계류에는 산천어, 오른쪽에는 열목어가 주로 서식하고 있다. 영동지방의 주요 포인트로는 강원도 간성의 북천, 양양의 오색천·갈천·어성천, 주문진의 연곡천, 삼척의 대이리계곡 등이 있다. 영서지방에는 내린천이 있는 인제와 현리 등이 잘 알려진 포인트다. 이 밖에도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저수지, 충청북도 단양군 남한강 일원, 강원도 정선군 일대의 조양강, 기화천 등 포인트가 많다. 올봄에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에서 플라이 낚시를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 낚시용품 전문 업체 앵글러플라이(www.anglerfly.co.kr), 스파이더플라이(www.spiderfly.co.kr) 등에서는 출조 계획에 따라 무료 캐스팅 스쿨을 운영해 플라이 낚시를 배울 수 있다.



tip 플라이 피싱 장비 알기

플라이 낚싯대, 릴, 바늘 등 모든 장비의 무게가 서로 일치해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낚시 장소, 대상어, 바늘 크기에 따라 어떤 무게의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된다.

낚싯대(Rod) 탄력이 우수해야 좋은 캐스팅을 할 수 있다. 낚싯대가 흰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빠른 것이 좋다. 잘 만든 낚싯대는 흰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와도 출렁거리지 않고 거의 멈춘 상태가 된다.

릴(Red) 플라이 피싱의 릴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는 단순히 라인을 감아주는 기능이며, 둘째는 낚싯대 손잡이 위와 아래의 무게 기능을 맞춰주는 것. 릴을 구입할 때 같은 무게의 것으로 조합해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플라이 라인(Fly Line) 미끼를 멀리 물고기가 있는 곳에 캐스팅하려면 어느 정도의 중량이 필요하다. 일반 낚싯대에서는 추가 흔히 사용되지만 플라이 피싱은 가벼운 플라이를 섬세하게 물 위에 드리워야 하는 것이라 추를 사용할 수 없다. 플라이 라인은 가벼운 플라이를 캐스팅할 수 있는, 길게 늘어뜨리는 추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조 라인(Blacking Line) 플라이 라인의 길이는 대부분 30m 미만. 그러나 이것으로 대어를 제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 라인을 감아둔다. 보조 라인은 테크론 합사를 주로 사용하며, 릴 사이즈에 따라 30~200m까지 감아둘 것.

목줄(Leader) 무색투명한 목줄은 물고기의 경계심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플라이 바늘을 섬세하게 드리우는 역할도 한다.

플라이(Fly) 플라이는 '털바늘'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플라이 피싱의 인조 미끼를 말한다. 곤충, 애벌레, 갑각류, 작은 동물, 작은 어류 등을 새의 깃털, 동물의 털, 인조 재료로 사용해 모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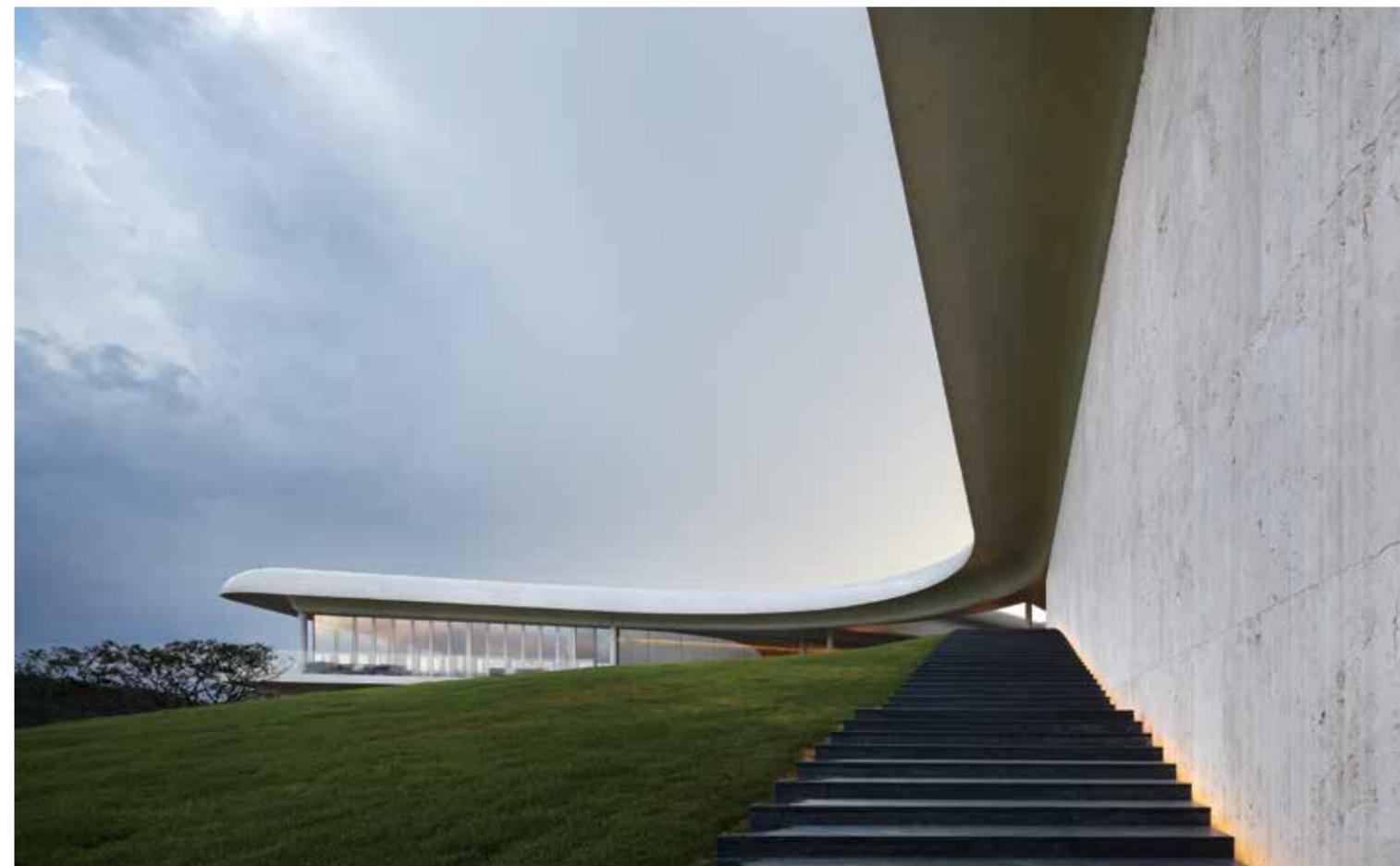
플라이 매기(Fly Tying) 플라이 바늘을 만드는 작업이다. 곤충이나 작은 수중 동물을 깃털이나 동물의 털, 인조 재료를 사용해 모방해 만드는 것이다.



South Cape Owners Club

남해의 아름다운 비경이 펼쳐진 곳에 자리 잡은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국내 최고의 골프 리조트라는 명성답게 최고의 건축가들과 아티스트들이 만든 그림같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18홀의 골프 코스가 펼쳐진다.

Editor 이희진 Coopertaion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02-1644-0280, www.southcape.co.kr)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South Cape Owners Club)’의 ‘케이프(Cape)’는 ‘곶’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남해안의 곶을 의미한다. 로고는 미국 조각가 리처드 애드먼이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 작품 ‘하늘을 나는 듯 경쾌하게’라는 악보 연주 볼란테(Volante)를 조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 작품을 구매해 사우스케이프의 심벌로 사용했다.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은 패션 브랜드 한섬의 창업자 한섬피앤디 정재봉 회장이 6년간 준비해 오픈한 골프 리조트다. 세계적인 코스 설계자 카일 필립스가 디자인한 골프장은 오픈 이후 최고의 풍광과 시설, 그린피로 화제를 모았다. 호텔과 빌라 단지 역시 ‘마스터피스’로 불릴 법한 설계와 디자인을 자부한다. 정재봉 회장은 2007년경 남해에 왔다가 이곳 경관에 반해 오직 힐링에 중점을 둔 골프 리조트를 계획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태백이 호수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워 물속에 뛰어난 것처럼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경치에

반했어요. 패션 업계에 오래 종사하면서 키운 심미적 안목으로 판단했을 때 바다와 섬, 산, 골짜기 등이 어우러진 이곳이 정말로 골프장을 만들기에 천혜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스케이프는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뿐 아니라 프런트 데스크, 식당의 파티션, 스파와 음악당의 벽체 등 많은 요소를 작품화했다. 이곳에서 추구하는 얼티메이트 힐링(Ultimate Healing)의 개념은 심신에 안정을 주는 정적 프로그램인 스파, 요가, 아날로그 뮤직 갤러리에 동적 프로그램인 단지 내 트레킹 코스, 바닷가 수영장, 요트, 낚시가 어우러진 것. 골프라운드는 원웨이 10분 이상 간격의 여유로운 티-업으로 운동과 더불어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과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까이에서 조망하며 걷는 힐링골프를 추구한다.



Healing Golf Course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의 골프 코스는 18홀로 바다 한가운데로 돌출한 케이프(Cape)형 시트(Sit)에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페어웨이가 전개된다. 크고 작은 섬으로 된 바다를 계속 조망하며 라운드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해외 링크스 코스가 대부분 평지인 데 비해 이곳은 단지 가운데 산을 품고 있어 입체감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코스 레이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 약 200만m²의 광활한 단지에 약 80m 폭으로 코스가 전개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이 플레이어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세 개의 아일랜드형 쇼트 홀은 긴장감과 더불어 골퍼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또 리아스식 해안을 연상시키는 유니크한 벙커 스타일은 다시 한 번 이곳만의 차별성을 느끼게 해준다. 매스스터디스 조민석 대표가 설계한 클럽하우스는 리조트의 최정점에 위치해 산봉우리의 상징인 암각 동산을 감싸 안고 남·북양측으로 바다를 조망하도록 만들었다. 남해의 해안선처럼 웅장한 곡선이 대자연과 품고 있는 듯한 클럽하우스 외관. 건물은 바다 풍경을 바라보는 창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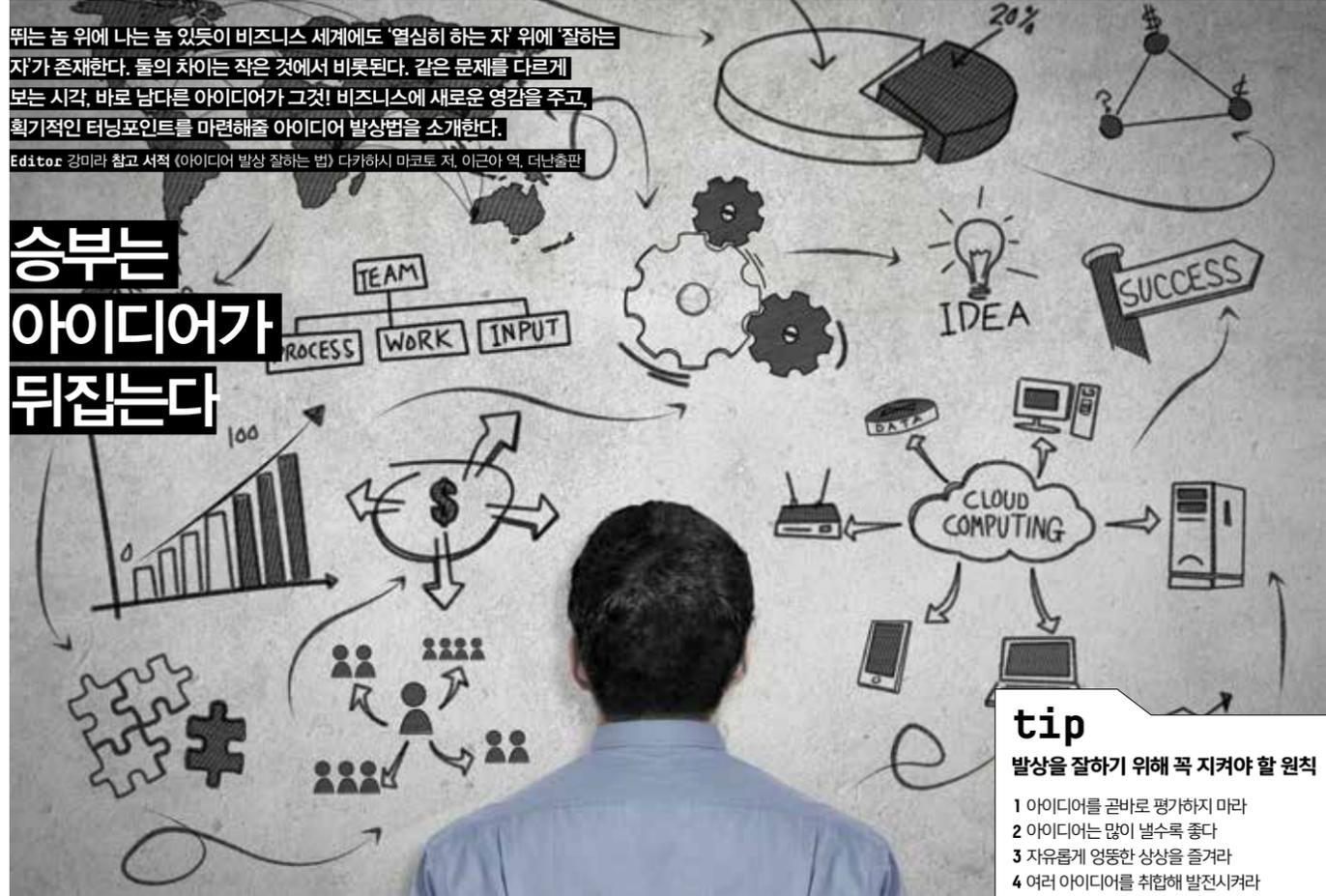
남해의 온화한 날씨, 자연과의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다와 하늘을 향해 열린 중정(Patio)은 미래를 향해 끝없이 뻗어가는 대양과 연결된 듯 백색 콘크리트 처마 면이 부드러운 3차원 곡선을 그리며 드러났다가 사라지며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중후한 트래버틴 대리석 벽이 병풍처럼 둘러싼 가운데 월넛 원목 등으로 부드러운 볼륨을 준 인테리어는 미래적 건축과 대조를 이루며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레스토랑, 리셉션, 라커룸도 천장은 작은 중정으로 재현했으며, 바닷바람과 조망을 만끽할 수 있는 노천탕은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골프장에는 두 곳의 그늘집이 있다. 서쪽 끝과 동쪽에 하나씩 자리해 '선셋하우스'와 '선라이즈하우스'란 이름을 붙였다. 유리벽이 병풍처럼 둘러싼 선셋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서 바다 위 낙조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기암절벽이 바다 위로 뻗어나와 뱃머리를 연상시키며 잔디로 식재한 지붕의 끝은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와 함께 바다 위 석양을 바라보면서 음악도 즐길 수 있다. 선라이즈하우스에서는 정동진처럼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Hotel & Amenities

직선이라는 뜻의 리니어(linear) 스위트 호텔과 빌라는 양평모자 집, 광화문 트윈타워, 헤이리의 카메라타를 설계한 조병수 소장이 맡았다.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자리한 객실 49개를 모두 다른 바다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안선과 선형으로 배치한 호텔은 직사각 상자 형태의 건물을 어긋나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암각 동산과 클럽하우스를 끼고 돌며, 바다로 돌출한 케이프형 지형을 따라 선과 면, 직선과 곡선의 절묘한 조합으로 빌라 일곱 개 동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형을 이룬다. 노출 콘크리트 덩어리로 마치 케이크를 썰어놓은 듯 해안선의 흐름을 따라 겹쳐놓기도 하고 비워놓기도 해 동과 동 사이와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 아래로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엿볼 수 있다. 그 아래에서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다. 실내로 들어서 길고 아늑한 복도를 지나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있는 바다 위에 쏟아지는 남해의 찬란한 햇빛을 마주하게 된다. 부티크 호텔의 심미성을 리조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체가 7성급 스위트룸으로 되어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청정 해역 남해의 풍성한 수산물과 국내 최대 일조량과 해풍을 받고 자란 고품질 농산물로 만든 로컬 헬스 푸드를 개발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만의 특화된 요리를 제공한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를 조망하며 산해진미를 즐기다 보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또 미술가 문범 작가가 미술 작품으로 완성한 파티션은 레스토랑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클럽하우스 지하의 뮤직 라이브러리는 독립된 두 종류의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오디오의 역사를 시작한 아날로그 기기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미래를 연상시키는 건축물 안에 자리한 고전적인 아날로그 음악실은 과거와 현대의 공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지 내 리아스식 해안의 기암절벽을 따라 조성한 오솔길 아래로 날마다 다른 색깔로 다가오는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 산과 바다 사이에 평상처럼 펼쳐진 마당바위와 절벽에 매달려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약 4km, 3시간의 트레킹 코스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의 모든 요소는 삶에 힘을 더하는 '힐링' 그 자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듯이 비즈니스 세계에도 '열심히 하는 자' 위에 '잘하는 자'가 존재한다. 둘의 차이는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는 시각, 바로 남다른 아이디어가 그것! 비즈니스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획기적인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줄 아이디어 발상법을 소개한다.

Editor 김미라 참고 서적 (아이디어 발상 잘하는 법) 다카하시 마코토 저, 이근아 역, 더난출판

승부는 아이디어가 뒤집는다

tip
발상을 잘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

- 1 아이디어를 곧바로 평가하지 마라
- 2 아이디어는 많이 낼수록 좋다
- 3 자유롭게 엉뚱한 상상을 즐겨라
- 4 여러 아이디어를 취합해 발전시켜라
- 5 다양하고 폭넓게 사고하라

발상의 순간의 다섯 가지 특징

미국의 심리학자 그레이엄 윌러스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때 '①준비 ②부화 ③번뜩임 ④검증'의 4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같은 생각에 골몰해 있으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그 생각을 벗어나 다른 일을 할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에도 준비와 부화를 거치는 나름의 '발상'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발상의 순간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다른 일을 할 때', '심적 여유가 있을 때', '조용하지만 적당한 소음이 있을 때', '갑자기 번뜩인다'는 것. 건축가 기쿠타케 기요노리는 생각을 잘 정리한 뒤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눈뜨는 순간 발상에 집중하고 침대 옆에 항상 놓아두는 스케치북에 떠오르는 것을 즉시 적어두었다고 한다. 아이디어의 단계를 잘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일본인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유카와 히데키는

태풍이 불던 날 고베에 있는 별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원자 중간자이론을 생각해냈으며, 영국 추리소설가 애거사 크리스티는 주로 목욕탕에서 작품을 구상했는데, 그녀가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사과를 먹으며 창작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처럼 자신은 언제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지 생각해두고, 알하지 않을 때도 유연한 사고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행운의 기회가 자주 찾아올 것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시각화하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는 것은 금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독창적 아이디어가 쉽게 나온다.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유명한 '마인드맵'은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잔이 개발한 것으로, 낙서하는 기분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용지 한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쓴 뒤,

여기에 가지를 뻗어 떠오르는 키워드를 적는다. 가지를 방사형으로 계속 넓히거면 막연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또는 강연을 준비하거나 기획안을 작성할 때 유용한 방법은 포스트잇으로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먼저 해당 과제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씩 포스트잇에 써둔다. 그런 다음 어떤 흐름으로 쓸 것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스트잇을 배열해본다. 순서를 바꿔보는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전혀 색다른 구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평소 흥미를 끌 만한 요소를 틈틈이 카메라로 찍어두거나, 위의 포스트잇과 함께 붙여놓는 것도 발상과 연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마인드맵이나 사진,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 생각을 시각화해 정리하는 것을 평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부를 뒤집는 아이디어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Ford Dealer News

포드의 딜러사별 다양한 뉴스를 모았다.
 Editor 이희진

포드코리아, 2014 포드·링컨 챌린지 컨퍼런스 개최

포드코리아는 지난 4월 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2014 포드·링컨 챌린지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5개의 포드·링컨 공식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 프리미어모터스, 헤인자동차, 이한모터스 및 더파크모터스 세일즈 컨설턴트 및 포드코리아 임직원 등 총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신차, 기술 및 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친 심층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포드·링컨 브랜드 세일즈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작년 포드코리아 공격적 마케팅과 높은 성장세를 올해에도 이어갈 것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올해 컨퍼런스는 전년

행사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포드코리아 임직원 및 세일즈 컨설턴트 모두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도록 꾸렸다. '링컨 브랜드 소개,' '포드의 핵심 모델 소개,' 그리고 '에코부스트 심층 트레이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각 주제에 대한 심화 세션을 거치면서 정보 습득은 물론, 그 안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각 주제 발표자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영업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포드코리아 마케팅 CMO 존 숄츠 부사장은 "지난 2013년, 포드코리아가 수입차 상위 10대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차 시장 성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딜러사 임직원들의 철저한 고객 서비스 정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대고객 서비스 강화와 포드의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드, 인천, 대구, 노원, 제주 등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 헤인자동차, 프리미어모터스가 각각 인천·대구(선인), 노원(헤인), 제주(프리미어) 전시장을 확장, 오픈하고 본격적인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 전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 가운데 하나로서 연면적 1648㎡(약 498평)로 포드·링컨의 전

차종 차량 전시가 가능하며 판매, 서비스, 정비 공장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3S(Sales, Service, Spare Parts) 형태를 갖추어서 한층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 전시장은 대구시 내 수입차 전시장인 집중된 수성구 동대구로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898㎡(약 272평)로 포드·링컨의 전 차종 중 9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다. 대구 전시장은 인천 전시장과 마찬가지로 판매, 서비스, 정비 공장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3S' 형태를 갖추었다. 구리와 의정부, 미아에 이어 헤인자동차가 서울 북부권 및 경기 북부권 지역에서만 네 번째로 오픈한 노원 전시장은 총 372㎡(112평) 규모로, 이 일대 랜드마크인 롯데백화점 인근 핵심 변화기에 자리 잡고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부도심 권역인 상계 및 중계, 그리고 인근 폭넓은 지역의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에게 포드·링컨 브랜드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전시장은 최근 내·외국인 인구 유입 증가 및 제주 영어교육도시 구축 등 신사업 시행에 의한 제주도 내 잠재 고객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오픈해 포드, 링컨의 지역 고객들과의 접점 강화 및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 전시장은 신제주와 구제주를 연결하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어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제주 전역의 고객에게 포드·링컨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예정이다.



Ford News

Editor 강미라



포드코리아, 2013년 판매 역대 최고 기록 경신

포드코리아는 2013년 연간 판매고 7214대를 기록했다. 이는 1995년 포드자동차가 한국에 진출한 이래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또한 2012년 판매고인 5126대 대비 무려 40.7% 증가한 수치다.

포드코리아는 2013년 5월, 7월, 10월, 11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월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링컨 역시 1589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전체 포드 세일즈의 22%를 차지해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가장 높은 연간 판매 기록을 수립했다.

2013년 국내 수입차가 연간 판매 15만6497대를 기록하며 19.5% 성장을 보인 가운데, 포드코리아의 성장률은 전체 수입차 시장 성장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수입차 업계 상위 10대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 포드는 수입차 시장 성장을 견인한 선도적 브랜드의 하나로서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포드코리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관람 이벤트 성료

포드코리아는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포드의 풀 옵션 대형 세단 토러스 및 베스트셀링 SUV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전 차종 시승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14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관람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제공했다. 1등 당첨자 8명에게는 포드가 21년째 공식 후원사(Official Partner)로 참여하고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퍼스트 클래스 결승전(5월 24일) 티켓과 포르투갈 리스본 왕복 항공권, 그리고 4박 5일 숙박을 포함한 여행 패키지를 증정했다. 또한 2등 당첨자 10명에게는 아디다스 축구화를, 3등 당첨자 40명에게는 아디다스 피날레 미니 볼을 제공하는 등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에게 다채로운 혜택이 주어졌다.



포드자동차,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세계적 기업 윤리연구소인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Ethisphere Institute)가 주관하는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포드자동차가 자동차 업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의 윤리적인 기업 선정은 전 세계 약 41개 산업 분야 내 총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포드자동차는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사회적 책임 및 거버넌스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로 5년 연속 세계 최고 윤리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포드코리아 역시 지난 12년간 포드 환경 프로그램(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힘써왔고, 윤리적 경영에 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포드 포커스, 2년 연속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 선정

세계 굴지의 시장 조사 기관인 IHS 오토모티브 산하 폴크(Polk)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신차 등록 자료에 따르면 포드 포커스가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109만7618대의 판매고를 기록,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의 자리에 올랐다.

2년 연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스는 중국 내에서만 전년(2012년 26만8354대) 대비 무려 50% 늘어난 40만3219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기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포커스는 국내시장에서도 포커스 디젤을 통해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포커스 디젤은 20.1km/L(고속도로 기준)과 17km/L(복합 연비 기준)라는 동급 대비 놀라운 연비를 실현하면서도 하이클래스 고효율과 정속성,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포드코리아, 봄맞이 'A/C 무상 점검 및 리프레시 캠페인' 실시

포드코리아는 봄을 맞아 포드·링컨 전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 및 차량 유지를 위한 'A/C(에어컨) 무상 점검 및 리프레시 캠페인(A/C Maintenance & Refresh Campaign)'을 실시했다.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3주간 전국 포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서비스는 에어컨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리 시 에어컨 관련 부품의 2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포드코리아의 숙련된 전문 기술자들이 진행하는 무상 점검에는 A/C 시스템 점검, 전자장치 점검, 냉매 점검, 냉매압력 점검, 냉매누유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번 A/C 무상 점검은 캠페인 기간에 홈페이지(www.fordconsumer.com)에 차량을 등록한 뒤 서비스 쿠폰을 다운받으면 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Ford Lineup

*제원은 2014년 5월 기준



2014 FOCUS

	Trend	Sport/Titanium
엔진형식	2.0 TDCi	2.0 TDCi
트랜스미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더블클러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더블클러치)
배기량(CC)	1,997	1,997
최대 출력(ps/rpm)	140/3,750	163/3,750
최대 토크(kg·m/rpm)	32.7/2,000~3,250	34.7/2,000~3,250
구동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공차 중량(kg)	1,319	1,319
복합 연비(km/L)	17	17
도심 연비(km/L)	15.2	15.2
고속도로 연비(km/L)	20.1	20.1
CO ₂ (g/km)	113	113
등급	1	1

2014 TAURUS

	2.0 SEL / 2.0 Limited	3.5 SEL / 3.5 Limited	SH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292/6,500	370/5,500
최대 토크(kg·m/rpm)	37.3/3,000	35.1/4,000	48.4/3,500
구동 방식	FWD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890	1,900	2,020
복합 연비(km/L)	10.4	9.2	8.2
도심 연비(km/L)	8.8	7.9	6.9
고속도로 연비(km/L)	13.3	11.7	10.5
CO ₂ (g/km)	171	193	220
등급	4	5	5



2014 MUSTANG

	V6 Premium	
엔진 형식	3.7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3,726	
최대 출력(ps/rpm)	309/6,500	
최대 토크(kg·m/rpm)	38.7/4,250	
구동 방식	RWD	
승차 정원(명)	4	
공차 중량(kg)	1,625 (Coupe)	1,680 (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3 (Coupe)	8.9 (Convertible)
도심 연비(km/L)	8.0 (Coupe)	7.5 (Convertible)
고속도로 연비(km/L)	11.6 (Coupe)	11.6 (Convertible)
CO ₂ (g/km)	191 (Coupe)	200 (Convertible)
등급	5	



2014 ESCAPE

	2.0 SE/2.0 Titanium	1.6 SE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1.6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1,5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180/5,700
최대 토크(kg·m/rpm)	37.3/3,000	25.4/2,5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FWD
승차 정원(명)	5	5
공차 중량(kg)	1,785	1,660
복합 연비(km/L)	9.2	10.6
도심 연비(km/L)	8.1	9.4
고속도로 연비(km/L)	11.2	12.7
CO ₂ (g/km)	192	166
등급	5	4

2014 FUSION

	1.5 EcoBoost	2.0 EcoBoost	2.0 Hybrid
엔진 형식	직렬4기통 1.5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iVCT 앳기스 사이클 엔진, 영구자석 교류(AC) 동기식 전기모터, 리튬이온 배터리, 제동에너지 재생 시스템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전자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배기량(CC)	1,498	1,999	1,999
최대 출력(ps/rpm)	179/6,600	234/5,500	143/6,600
최대 토크(kg·m/rpm)	25.4/2,500	37.3/3,000	17.8/4,000
구동 방식	FWD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585	1,645	1,790
복합 연비(km/L)	11.8	10.3	18.0
도심 연비(km/L)	10.1	8.9	17.9
고속도로 연비(km/L)	14.7	12.7	18.2
CO ₂ (g/km)	149	172	92
등급	3	4	1



2014 EXPLORER

	XLT	Limited
엔진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트랜스미션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294/6,500
최대 토크(kg·m/rpm)	37.3/3,000	35.3/4,000
구동 방식	F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7	7
공차 중량(kg)	2,130	2,230
복합 연비(km/L)	8.9	7.7
도심 연비(km/L)	7.8	6.7
고속도로 연비(km/L)	10.7	9.4
CO ₂ (g/km)	200	235
등급	5	5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1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1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킷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2014년 6월 기준

SHOWROOM

서울	삼성 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9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2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7-1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0 동일하이빌뉴시티 1층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09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11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2-5 포드빌딩	02-6928-3000
	빙배 전시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1-1 장산빌딩 1층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28	02-6941-3000
	마포 전시장(6월 오픈 예정)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8	02-6420-1000
경기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116-16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7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901-6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05-3 한화생명 빌딩 1층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88-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5	032-832-0001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7-7	042-823-2000
충청	천안 전시장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2-0007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64-1	051-758-0075
부산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3번지 센텀O	051-741-5114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2-7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65-10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5-4	053-766-2000
포항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120-6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91-43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3-6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3	033-646-23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시 일도2동 69-6	064-759-9888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11	02-3661-0011
	삼성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9	02-3443-450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2	02-3444-1304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5-1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2-5 포드빌딩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07-53	02-6370-1000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7	031-701-7004
	일산 지정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64-2	031-913-2913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901-6	031-425-2212
경기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88-2	031-8030-1000
	인천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6-46	032-863-6080
충청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8-61	042-585-5484
	천안 서비스센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3-0009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09-107	051-758-0046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01-33	051-715-2000
울산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65-10	055-715-3003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2-7	070-8897-4840
대구	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32-1	053-355-7668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91-43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3-6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0041
	강릉 지정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574-1	033-641-9213
제주	제주 지정 서비스센터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2469	064-759-1472



유럽에서 탄생한 새로운 포드 디젤세단을 만나보세요.

“포드 포커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Polk사 선정)**

1948:
포드, 첫 디젤 엔진을 개발하다

2000:
포드, 첫 듀라토크 엔진을 선보이다

2013~2014:
163마력, 34.7kg·m 토크의 강력한 드라이빙 성능을 자랑하는 포커스 디젤

2013~2014:
20.1km/L, 뛰어난 연비의* 포커스 디젤

TDCi FOCUS 디젤

동급 디젤세단보다 뛰어난 연비와 마력 그리고 토크까지, 이 모든 것을 'fun-to-drive' 패키지에 담았습니다. 20.1km/L의 연비를 자랑하는 포커스 디젤을 지금 가까운 포드 전시장에서 만나 보십시오.

*수입 2.0 디젤 C-세그먼트 세단 기준 (프리미엄, 고성능 모델 제외)

**위 내용은 Ford가 규정한 단일 차량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에 의해 자동차량이 바뀌거나, 플랫폼이 공유된 차량은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 Polk 신규 국제 자동차 데이터에 등록된 다른 버전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646-2300
원주 03)762-0040	대전 04)823-2000	천안 04)562-0007	전주 06)273-0005	광주 06)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수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61-3388	창원 0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포커스 2.0 TDCi :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535kg 자동6단 복합연비 17km/L (도시연비:15.2km/L, 고속도로연비:20.1km/L) 1등급 복합CO2배출량 113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 080-300-3673, 02)517-4357 ※ 전국 27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



GREEN
CROSS

Green Cross 후원에 대한 약속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태그호이어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Green Cross 국제 기금 마련 프로그램을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agheuer.com/kr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arrera
Series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

제품 및 AS 문의 태그호이어 부직 상담점 02-548-6020~1 롯데호텔 소공점 02-776-9018
갤러리아 EAST 수원점 천안 센터시티점 대전 타임월드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대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점 부산 센텀시티점 부산 광복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대구점 AK플라자 분당점 수원점 대백프라자 명보사
www.tagheuer.com/kr